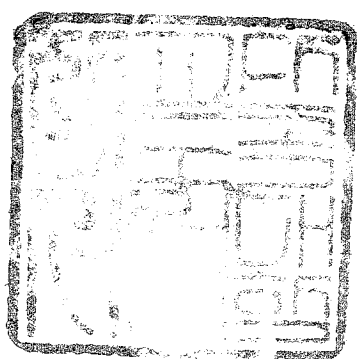


濟州島民謡の研究



本論文은 國文學碩士學位
請求의 一部으로 檀國大學
大學院에 提出함

申 斗 憲

AB, 1959

1961, 12

朴鍾聲 博士
大學院 主任 教授



金 容 浩
指導 教授



차례

序論

第一章 民謡의 概念 3

- A. 民謡의 起源 3
- B. 國文學과 民謡 6
- C. 要約 11

第二章 濟州民謡의 發展 12

- A. 鄉土民謡으로서의 成立 12
- B. 鄉土民謡의 發展 17
- C. 要約 23

第三章 濟州民謡外 民俗 25

- A. 民謡外 民俗 25
- B. 民俗의 特異性 70
- C. 要約 79

第四章 濟州民謡의 特質 81

- A. 內容上의 特質 81
- B. 形式上의 特質 94
- C. 要約 106

第五章 陸地民謡外의 比較 108

- A. 近似處에 對하여 108
- B. 相異處에 對하여 133
- C. 同異의 要因 144
- D. 要約 148

結論 152

序 論

「民謡의 섬」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濟州島는 韓半島의 南端에서도 훨씬 멀리 떨어진 海上에 외로이 位置하고 있다. 이 濟州島는 歴史的 地理的인 影響을 받아 半世紀前만 해도 閉鎖性社會를 이루어 오늘날처럼 陸地와의 交通이 頻繁치 못하였기 때문, 文化의 交流도 疎通하였거니와 反面에 一旦 濟州島에 傳해진 文物은 그리 쉽사리 消滅되지 않고 오랜 동안 保存하여왔다.

그 風俗, 言語, 人情, 生活樣式 등이 陸地와 差異점이 많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傳해지고 있는 것을 日常生活에서 흔히 볼 수 있다.

陸地에서는 오랜 前에 消滅된 古語를 濟州島에서는 現今도 使用하고 있으며, 옛날에 元의 侵寇를 받은 적이 있는 이 섬에는 그 遺風을 火田民의 生活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日本과의 交通이 比較的 頻繁했던 關係로 言語와 生活樣式 등에 많은 變異를 招來하여 陸地와는 顯著的 差異를 보이고 있다.

濟州島는 오랜 동안 閉鎖性社會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鄉土의 民謡에 陸地와 다른 獨特性을 지니게 되었으며 民謡의 內容面, 形式面, 言語面 등에 色다른 點을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앞으로 開拓의 餘地가 많다. 그러기에 濟州島는 「民謡의 寶庫」라는 이름까지 지니고 있다.

이제 筆者는 濟州民謡를 考察하면서 그 內容面의 特質, 形式面의 特質 등을 摘出하여 陸地民謡와 比較

하므로써 濟州民謡의 特質을 一層 明白히하며 그 原因이 되고 있는 濟州島의 風土와 民俗도 살피 濟州民謡研究의 새로운 資料를 만들고자 試圖하는 바이다.

濟州民謡의 研究에 있어서 學究的인 分野는 너무나 廣範圍하기 때문에, 言語學的인 研究에는 손을 대지 않고, 주로 民謡에 나타난 特異한 風俗, 生活相, 人情等を 살피고, 鄉土的인 特質을 内容面에서와 形式面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鄉土民謡 研究에 있어서 그 準備에 必要를 느끼기 때문에, 民謡의 發生, 發展, 그리고 民謡과 國文學과의 關係, 民謡과 民俗과의 關係, 鄉土民謡로서의 成立等を 考察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濟州民謡과 陸地民謡와의 比較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濟州民謡를 中心으로 陸地에 共通乃至 近似한 點과 相異되는 點을 찾아 내어 比較하려고 한다.

여기에 紹介하는 民謡는 濟州島 方言을 그대로 적고, 또한 意味未詳의 句節이나 語句에 있어서도 구태여 牽強附會를 삼가고자 한다.

第一章 民謠의 概念

A. 民謠의 起源

民謠의 發生에 對하여는 從來 두 가지 學說이 있다. 곧 첫째 說은 民謠의 濫觴은 어떤 一個詩人의 제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民謠도 다른 詩歌와 마찬가지로 過去에 있어서는 어떤 詩人이 個人的으로 지은 것이 一時 都鄙에서 流行하던 詩歌로서 口口傳承되는 동안에 그 原形이 變改되어오다가 比較的 流行性的인 生命이 짧은 都會에서는 어느 틈에 없어져 버리고, 流行性과는 동떨어진 地方에서는 流行되던 詩歌가 남아 時間的으로 流行되어 온 것이다. 곧 民謠는 決코 純野生的인 꽃이 아니고 溫室에서 자라난 野生的인 芳香을若干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둘째 說은 이러하다. 漁樵耕耘을 生業으로 하는 純朴한 民衆 속에서 胚胎되어 처음에는 歌謠에 재주 있는 사람이 부른 것을 또 詩歌에 재주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 詩形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지어진 노래가 時間的 空間的으로 流轉되는 사이에 그 노래는 차츰 차츰 個人的인 色彩를 解脫하여 노래는 점점 民衆의 마음 속에 흘러 들어가 더욱 더욱 變改와 修練이 加해져 노래의 歌詞와 旋律은 서로 어울리어 詩情을 더욱 美化해 나

아가는 途中에 한 完全한 民謡가 生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說이 있는데 一般的으로는 둘째 說을 믿게 된다.¹

發生說에 의하여 發生時期를 考察해보면 亦是 上古時代 藝術未分化時代에서부터 많은 民謡가 流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上古時代의 歌謡에 關하여는 다른 部門에서도 그러하겠지만, 國內文獻이 殆無해서 단지 外國文獻을 通해서 그 概況을 엿볼 수 밖에는 별다른 方法이 없다.

「魏志·東夷傳」 辰韓條에

「俗喜歌舞飲酒、有琴其形以筑、彈元亦有音曲」이라 하였고, 또 「三國志」, 「魏書」, 「東夷傳」 등에 다음과 같은 記錄을 찾을 수 있다. 即

「夫餘---以殷正月祭天、國中大會、連日飲食歌舞---行道晝夜、無老幼皆歌、通日聲不絕」

「高句麗---其民喜歌舞、國中邑落、暮夜男女群聚相就歌戲---」

「濊---常用十月節祭天、晝夜飲酒歌舞---」

「馬韓---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群聚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似鐸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

라 한 몇몇 記錄을 通히 보면 上古時代부터 民謡가 相當히 流轉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 周王山., 朝鮮民謡概論, 東洋프린트出版社 1947 P.5

韓國人是 劇的보다도 音樂的 國民이며 器樂的보다도 聲樂的 國民이다.²

高麗에 있어서도 그 民謠는 거의 全部가 湮滅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李朝에 들어와서는 客觀的 情勢의 變化 다시 말하면 李朝는 儒敎로서 立國하였으므로 上流階級에서 短歌를 通해서 그 思想과 感情을 表現하였는데 反하여 下流階級에서는 儒敎道義와 桎梏의 所致로 急激히 많은 民謠가 胚胎되었다고 믿는다. 그 民謠의 全部가 今일에 이르기까지 그 眞價를 發揮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別問題라 할지라도 或은 田野에서 勞作할 때, 或은 家庭에서 紡績할 때, 그들의 口로부터 無意識的으로 또 自然스럽게 吐露되었을 것임은 틀림 없을 것이다.³

이와 같이 發生한 民謠는 一般民衆 사이에 널리 盛行되어 왔는데, 그 時代相을 如實히 反映하고 있다. 例를 들면 아리랑의 一節에

李氏의 四寸이 되지 말고,
閔氏의 八寸이 되려 무나.

노랑두 대가리 물네를 상투,
언제나 길러서 내서방 삼나.

이것은 閔氏 一族이 李朝 末葉에 있어서 宏壯히 勢力을 부린 것과, 兩班階級에서 當時 盛行되었던 無理한 早婚慣習의 弊端을 諷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2. Ibid p. 9

3. Ibid p. 104

4. 李在郁, 朝鮮民謠序說, 朝鮮文化叢說, 1947 p. 102

B. 國文學과 民謠

國文學에 있어서 民謠가 어떠한 位置에 놓여 있는가? 그 文學發展의 體系를 假想할 때에 古代的 構成體는 民謠임을 斷言할 수 있으니 記錄以前の 傳承時代에 있어서 詩歌의 分野는 民謠가 차지했던 것이며, 鄉歌時代에 들어와서 비로써 國文學의 記錄을 보았으나, 여기서는 民謠가 強力히 作用해서 그 中에는 薯童謠, 風謠, 處容歌等의 民謠가 介在되었고, 다음 高麗代에 들어와서는 靑山別曲, 西京別曲, 動動等의 大部分이 民謠乃至 民謠 影響 밑에 이루어진 것이며, 百濟歌謠라 傳하는 井門詞도 民謠의 一種일 것인즉 國文學史의 年代를 鄉歌以前은 民謠時代요, 鄉歌以後는 民謠와 記錄文學의 並立時代라 할 수 있다.⁵

文學의 發明이 人文發展에 도움이 되는 同時에 生活記錄을 할 수 있고 創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人類는 創作에 있어서 模倣을 했을 것인즉 鄉歌의 境遇에 있어서는 從來 傳承되어오던 古典文學 即 民謠가 記錄文學으로 移記되었을 것이며 그런 後에 模倣과 創作이 半半成立되고, 다음 段階에 들어가서 비로써 創作이 可能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前提下에 古代文學을 考察할 때, 많은 民謠가 介在해 있었을 것인즉 그 中에 「三代目」이 두드러진 例라 하겠다.

日本人 竹友藻風 은

「叙情詩가 歌謠의 中から 發達したやうに、歌謠は 民謡の 中から 發達した。従つて、歌謠の 言葉には 往往 民謡を そのまま 取入れたものが 残つてゐる。否、言葉のみならず、音樂も亦、屢 民謡の 痕迹を とどめてゐる。甚くとも 西洋音樂に 於ける Art-Songは Folk-Song の 中から 生れたものであると 言ひ得るであらう。」⁶ 라고 하였으니

即 「叙情詩가 歌謠속에서 發達한 것처럼 歌謠는 民謡속에서 發達하였다. 따라서 歌謠의 말에는 往往 民謡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남아 있다. 아니, 말 뿐만 아니라, 音樂도 또 가끔 民謡의 痕迹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西洋音樂에 있어서의 Art-Song 은 Folk-Song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으리라」

民謡는 國文學과 直接 交渉을 가지고 대로는 文學의 動機가 되고 相互作用한 民衆에 基盤을 둔 健全한 國文學으로 認定해야 할 것이다. 庶民大衆의 生活力을 庶民自身の 손에 依해서 表現한 藝術인 만치 國文學의 重要な 分野를 차지함은 勿論이다.

다음 民謡를 中心으로 해서 說話, 挿入歌謠, 歌詞, 時調等과 如何한 交渉을 가졌는가 이것을 簡單히 圖解하여 表示하고 說明을 부치고자 한다.

挿入歌謠와 民謡.

판소리의 挿入歌謠는 民俗劇의 挿入歌謠가 그대로 形態的인 轉異로 이루어진 것이고 애초의 初期의 挿入

歌謠는 民謠의 그대로의 移入이 많은 것이다.⁷
 오늘날 남아 있는 판소리 寫本에 잠겨 있는 挿入歌謠는 民謠 그 自体와 달라지나 그것은 辭說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民謠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辭說化 傾向이 분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轉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挿入歌謠는 民謠的인 바탕을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挿入歌謠를 通하여 판소리에 移行된 民俗的 淵叢을 考察할 수 있다.

이리하여 民俗的인 占卜辭、고사、致誠辭、念佛辭、讀經辭는 勿論、兩班文學에서 借用한 風月、漢詩、祭文、書簡、漢文等屬이며、時調、歌詞等과 敬坊謠로서의 雜歌며 其他 民間語戲謠、農謠로서의 農夫歌、牧童歌、其外 喬頭소리、哭聲辭說、民謠로서의 打令等屬이 萬華鏡的으로 定着되어 있다.⁸

根源說語
 또하나의 根源說語 } — 판소리 한 마당

台本으로서의 定着 ———> 小說化

(歌辭) (打令)
 說話小說 ←————→ 民謠
 (挿入되기도 한다)

7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韓國文化叢書第17輯, 乙酉文化社, 1961, p. 549

8 Ibid. p. 549f

歌辭와 民謠의 交渉

여기 歌辭에 있어서는 주로 內房歌辭와 歌辭를 말하고저 한다. 內房歌辭는 嶺南을 主舞台로 하여

1. 딸을 訓戒시키고 教育시키는 戒女歌
2. 出嫁後에 念慮하는 姿女歌
3. 出嫁한 딸이 親庭을 그리워하는 戀母歌
4. 親庭에 들어와서 父母님 生誕宴이나 其他 慶事에 벗들과 부르는 꽃노래

等이 있어 이러한 노래가 처음엔 內房에서 부르다가 漸次 一般化하게 되어 庶民 婦女層에 分樂하여 民謠化하게 된다.

說話 (傳説)와 民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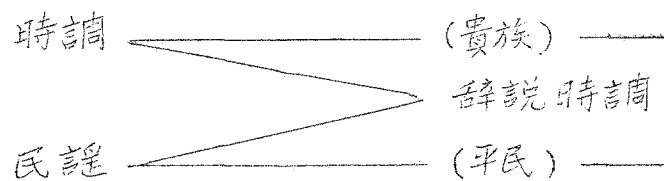
說話 그 中에서는 傳説을 背景으로 하여 登場하는 民謠가 많으니 傳説이 庶民層의 生活 속에 浸透되어서 口頭로 傳해지고 더욱 나와서 이것을 믿는다는 事實이 노래를 形成하게 되어 民謠가 成立되었다고 본다. e.g. 紅桃傳説, 香娘傳説, 青蛙傳説, 岫谷傳説, 義岩傳説(論介)等이 있다.

時調와 民謠

民謠와 時調는 正反對의 處地에 있다. 卽 時調가 貴族階級の 所有인데 對하여 民謠는 所有者가 庶民이고 그들의 生活를 노래한 것인단치 各其 成分이 다르다. 이와 같이 異質的인 兩者가 確實히 서로 먼 距離에 있으면서도 歴史的인 事件과 社會的인 環境을 契機로하여 交渉을 맺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形成된 것이 辭說時調다. 辭說時調는 一名 長時調란 名稱도 있으나, 時調에서 確認하여 民謠的 內容을 가지고 登場했던 것이다. 이러한 辭說時調를 靑丘永言, 大同歌謠, 古歌謠, 南菴

太平歌、歌曲源流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辭說時調은 時調과 民謠의 中間的 位置에 處하여 純時調라고도 할 수 있으나 또한 純粹한 民謠라고도 할 수 있는즉 이것이 形式面에 있어서 時調의 破格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本質的인 면에서 볼 때 民謠勢力의 擴張을 意味한다.



以上の 例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詩歌의 原始形은 民謠의 世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卽 民謠는 國文學의 一分野를 차지하고 있음을 確言할 수 있다.

그러면 民謠란 어떤 性質의 노래인가
消極的으로는

1. 童謠라고 하는 아이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2. 特定詩人이 지은 歌謠가 아니다.
3. 妓生이나 職業的歌手에만 불리우는 노래가 아니다.
4. 他地方에서 輸入되어 불리우는 流行歌가 아니다.
5. 知識階級에 불리우는 노래가 아니다.

積極的으로는

民謠란 어느 地方에 있어서, 어느 때 누구에 依해서가 아니고 自然히 생겨나서 一般的으로 불리우는 歌謠이다.

이는 極히 自然的이지만은 民謠라는 것은 이런 種類의 歌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C. 要 約

民謠의 起源은 漁樵耕耘을 生業으로 하는 民衆 속에서 誕生하여, 時間的, 空間的으로 流轉되는 사이에 一般民衆에 널리 盛行되어 온 것인데 發生한 時期는 上古 藝術未分化時代에서부터 같은 民謠가 流轉되어 왔으며 언제나 그 時代相이 如實히 反映되어 있다.

李氏의 四寸이 되지 말고

閔氏의 八寸이 되려 무나. 라던지

노랑두 대가리 물레줄 상투

언제나 길러서 내서방 삼나. 같은 句節을 보면

閔氏一族이 李朝末葉에 있어서 宏壯히 勢力을 부린 것과 兩班階級에서 當時 盛行되었던 無理한 早婚慣習의 弊端을 諷刺한 것이다.

民謠는 國文學의 胎盤이라고 볼 수 있으며, 說話, 古代小說, 歌詞, 時言周, 판소리 등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말로 말하면 民謠란 무엇인가?

民謠란 어느 地方에 있어서, 一定한 時期가 아니며, 어느 特定人에 依해서가 아니고 自然히 생겨나서 一般的으로 불리는 歌謠다.

參 考 文 獻

1. 周王山., 朝鮮民謠概論. 서울 東洋프린트社. 1947.
2.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61
3. 李在郁., 朝鮮民謠序說, 朝鮮文化叢說, 1947
4. 竹友藻風., 民謠. 東京 岩波書店. 1934

第二章 濟州民謡의 發展

A. 郷土民謡로서의 成立

元來 原始時代의 人類는 不絶히 大自然의 壓迫에 反抗하고 野獸과 싸와가면서 本能的인 生을 維持해 가기가 한 끝이었다. 그들에게는 所謂 餘剩精力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生活的 習俗은 勞動에서 派生된 것이며, 後日 人智의 發達에 따라 漸次 形成된 모든 原始文化는 그 起源을 勞動에서 探究하는 것이다.¹

原始人의 勞動過程에서 肉體에 浸透된 이 勞動의 리듬은 그들로 하여금 리듬의 魅力를 느끼게 하였고, 피에테의 所謂 「魔術的인 그 무엇」인 리듬은 그들의 勞動에서 休息으로 移行한 뒤에도 오히려 그들의 肉體 속에 스며있어, 그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 無限히 愉快하고 기쁜 것이었다.

이 生産과 無關係한 리드미칼한 肉體의 運動은 이미 勞動이 아니고 喜悅만을 맛보기 爲한 別箇의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엔 一種의 作亂이었고 遊戱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차차로 發展해서 舞蹈이 되고 다시 言語의 發達을 機緣으로 노래가 添付되어, 드디어 民族的 無意識的인 未分化藝術 綜合體인 民謡를 形成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므로 原始民謡는 構成要素는 同時的이 아니
고 前後繼起的인 것이 明確하다.²

藝術의 分化에 對하여 李秉岐와 白鐵은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人間의 感情이 比較的 單純하고 淳朴하였을 때
에는 綜合藝術體가 그들의 單純한 生活感情을 表現
할 수 있었고, 自然發生的으로 그들의 藝術活動을
堪當해낼 수 있었던 것이나, 차츰 人間의 生活이
複雑하여지고 그들의 生活手段이 分業化하여짐에
따라 藝術도 必然的으로 過去의 綜合體인 形態에서
解體分化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即 그들의 모든
文化의 程度가 차츰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感情을
滿足시키는 方法, 말하자면 表現의 方式이 多岐하
게 됨은 勿論이오, 이에 隨伴하는 注意力도 처음
에는 綜合的이었던 것이 차츰 個別的인 分野로 獨
立集中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音樂, 舞蹈, 詩歌는 各各 專門的인
技術人에 依하여 分業的으로 分難되기 始作하였다.
이렇게 分難獨立한 詩歌(文學)는 或은 口口傳承하는
口碑的인 方法으로 或은 表記方法을 얻은 後로는 文學
上에 定着하면서 傳承되어왔다.

前者를 우리는 流動文學(口碑文學, 口傳文學)이라
일컬고 後者를 定着文學이라 일컫는다. 오늘날 全國
坊々谷々에 傳하여오는 口傳說語, 民譚, 口傳民謡等
이 前者에 屬하며, 「三國史記」 「三國遺事」를 비롯한
古文書에 傳하는 神話, 傳說, 說話, 詩歌, 漢譯歌

등이 곧 後者에 屬하는 것이다.³

그러면 民謠形成 過程의 最初의 段階는 어떠한 形態의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意味없는 두 서너音節의 소리였으리라. 野獸를 물 때의 喊聲, 合力해서 무거운 物件을 움직일 때, 一齊히 發하는 소리, 지금 우리가 街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勞動者가 層階물이나 긴 목나무대를 運搬할 때 외치는 여차, 여차 (여이차 여이차, 이야차 이야차) 하는 소리, 논 밭 갈 때의 소 모는 소리, 牧童들의 「아-」 「호-」 하는 말 모는 소리와 같은 現在도 우리가 듣는 이런 소리는 民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單純하다 할 지나, 가장 單純한 노래임은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노래를 이루었으니 現存 未開人の 歌舞에서 옛날을 想像하여 보자

濟州島 漢拏山麓에 放牧하는 牛馬들을 모는 牧童의 소리, 또는 밭 밟는 노래 속에 e. g

월 월 -----
 의 어 이 이
 어 이 이 다
 아 어 어 이
 어 이 다 양
 일 천 간 장
 이 어 -----
 아 어 어 이
 월 월
 외 러 러 러 이

3. 李秉岐. et al.,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p. 205

이 돌 돌아
고비 고비
돌아 오라
어라라 ! 4

여기서 原始的인 無意味한 喊聲을 엿볼 수 있다. 또 「三國史記」에 실린 「會蘇曲」의 由來에 關한 記事도 民謠의 最初 形態가 單純 無意味한 소리의 反復이었다는 좋은 證左가 되는 同時에 民謠의 構成要素가 리듬 (音樂) — 動作 (舞蹈) — 文句 (文學)의 順으로 前後 繼起하여 綜合體를 이룬 것이란 推斷의 適例가 될 것이다.

「--- 王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績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負家一女子 起舞歎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曰會蘇曲」

第一段階에서 이 單純 無意味한 소리의 反復 사이에 動作 (勞動, 舞蹈) 指導者의 獨唱이 들어 가면 벌써 버젓한 民謠이니, 이것이 第二段階라 할 것이다. 獨唱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最初에는 一句, 그리고 그 뒤에 二句一聯으로 發達한 짧은 文句를 말함이니 韓國의 「보리 打作 노래」 地方的으로는 全羅道의 「강강 수월래」 慶尙道의 「케지나 칭칭 나네」 등은 그 典型적인 노래다. 5

5. 高晶玉, op. cit p. 21 f

이와 같이 發生 成立한 民謠는 時間的 空間的 經過에 따라 점점 發展하였으며 널리 傳播되어 地方的인 特色을 지니게 되었다. 鄉土民謠로서의 成立에 對하여 任東權은

民謠가 民族生活 속에서 生成消長하고 그들의 生活과 더불어 자랐다면은 民謠 속에는 그 民族의 生活感情이 如實히 反映되고 또 各己 地方에 따라 鄉土的인 特色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民謠를 通해 서 民族性을 究明할 수도 있다. 또는 鄉土的인 氣質、風俗、自然等を 살필 수 있다.

우리의 民謠가 鄉土性이 稀薄하다는데는 누구나 肯定하는 바이다. 거기에는 몇가지 理由가 있다. 卽

첫째로 李朝의 朱子國政의 文化統制策이 그 이유이며,

둘째로는 中央集權制의 影響이다. 많은 西歐先進國家에 있어서도 近者까지 地方에는 諸侯가 割據하여 獨立國家처럼 行使하여 文化樣相도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었으나, 우리 나라는 오래 옛날부터 中央集權體制였기 때문에 各其 鄉土的 特色을 造成하기가 困難한 客觀的條件에 있었다

셋째로 韓日合併後로 日本資本이 全經濟權을 掌握하게 되자, 國民生活은 破綻을 일으키어 南道의 農民들은 農土를 버리고 北道의 工業生産地帶로 移住를 하게 되니 農民의 移住는 그와 隨伴해서 民謠의 移動을 齎來했다.

넷째로는 大院宮의 景福宮 修築工事を 指摘할 수 있으니 李朝末의 社會的 不安定이 다한 實情으로

數十萬名の 賦役을 全國에서 徵發해서 工事に 使役했던 바 民衆의 不滿은 冲天하였다. 이 때 官에서는 勞働의 過勞를 忘却케 하려는 一策으로 밤마다 飲酒와 歌唱大會를 勸誘하였으니, 이 때 노래 개나 하는 者는 郷土의 民謠를 뽑내어 불렀을 것이다. 이 結果는 全國의 民謠가 이 곳에서 交換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다. 卽 嶺南의 노래가 關北으로 가고 또는 關北의 노래가 嶺南으로 傳播할 수 있는 人爲的 動機를 造成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理由로 因해서 우리 民謠가 郷土의 特色이 稀薄하다는 것은 事實이나, 여기에서 例外는 濟州島이다.

濟州島는 地理적으로 海중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本土와 交通이 疎遠했던 까닭에 特殊現象을 보여줌은 勿論이다.⁶

B. 郷土民謠의 發展

前項에서 民謠가 原始集團勞働의 律動에서 出發한 것과, 그 結果 노래가 勞働에 對해서 一種의 潤滑油의 機能을 다하고, 作業을 統制하는 役割까지를 擔當해 왔던 事實에 言及했었는데, 이렇게 出發한 民謠는 그 發達에 따라 勞働的 機能外에 政治的 機能, 宗教的 機能, 雌雄淘汰的 機能 등으로 發展하였다.

6. 任東權, 郷土民謠의 考察, 現代文學第Ⅲ卷6號, 1957. 6 P. 222f

人類의 未開時代에는 사람의 活動은 切實한 生活上 慾求에서만 促進되는 것이며, 此中 階級分化 以前에는 全民族의 全文化에 形而上學的 觀念形態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民謡의 世界에 있어서도 個個의 노래는 결코 漫然히 成立되고 無意味하게 傳播된 것이 아니라 衣와 食과 마찬가지로 痛切한 生活的 慾求에 따라 成立, 傳播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後世에 와서는 이런 原始的 役割은 大部分 차차 稀薄해졌으나, 그 痕跡은 如前히 남아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前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古民謡의 모습을 살피고자 할 때 우리는 遺憾이나마 中國의 古史籍을 빌어 僅々히 三韓時代까지 溯及할 수가 있을 따름이다 (Ch. I P. 4 參照)

要는 여름에 씨를 뿌리고 난 뒤와 가을에 收穫한 뒤에 部落民 男女 全体가 한 곳에 모여 生成의 神에게 豐年을 祈願하고 感謝를 드리고 鬼神을 鎮定하는 同時에, 그들의 長師 (政治指導者, 祭祀主宰者)를 그들의 總意로 選出한, 一年一回乃至二回の 政治的, 宗教的 部落民大會의 狀況이다.

그러나, 事實은 그들의 政治宗教部落民大會는 威嚴한 部落民 男女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술과 춤과 노래로 즐기는 一大歡樂의 祭典이었으니, 迎鼓, 東明, 舞天等은 바로 古代希臘의 「아티카」에서 행한 「디오니소스」의 祭祀 「디투람보스」나 中國의 「踏歌」나 日本의 「歌垣」와 共通된 民族的歌舞 그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民族的歌舞가 어떤 旋律과 어떤 춤과 어떤

노래로 된 것인지 우리는 다만 中國古代의 鐸舞 비슷한 춤의 片鱗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며, 古代 中國人이 그것을 倡樂이라고 불렀든 것 밖에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歌舞가 곧 政治的 宗教的機能을 가졌었다는 것은 嚴然한 事實이니, 에른스트 그로오씨가 狩獵民族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興味있는 일이다.

「狩獵民族의 舞蹈는 大概 集團的 舞蹈이다. --- 全集團이 한 法則, 한 長短에 쫓아 運動한다. 運動의 이 「驚歎할」 齊一에 對해서 原始舞蹈記述者들은 異口同聲으로 再三 言及했다. 實로 許多한 參加者들이 舞蹈의 熱情에 같이 溶解되어, 마치 한 感情으로 感激되고 動作되는 一體의 觀을 모한다. 舞蹈中에 그들은 完全한 社會的統一의 狀態에 있고 舞蹈하는 群衆은 한箇의 有機體와 같이 느끼고 또 活動한다. 原始的 舞蹈의 社會的 意義는 바로 社會的 統一의 이 效果에 있다. 即 舞蹈은 그들의 不規則 不確定한 生活狀態에 있어, 形形色色인 各自의 需要, 慾望에 휩쓸려 四方으로 散逸한 사람들의 一群을 같은 目的 感情 衝動 아래서 活動하도록 誘導馴致한다. --- 舞蹈은 戰爭을 除外하면 --- 그들의 團體的 統一을 참으로 認知케 하는 唯一한 因子일 것이다. ---」(民謡의 政治的機能)
7

「舞蹈의 快感은 勿論 舞蹈者自身이 가장 強하게 直接으로 經驗하나, 演者의 經驗하는 큰 快感은 自然

傍觀者에게도 傳해진다. -- 이리하여 舞蹈者나 觀覽者가 다 같이 激烈한 興奮속에 들어간다. 卽 그들은 音響과 運動에 醉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熱中이 더욱 더 高調되어 드디어 정말 미친 것 같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光景을 現出하는 일도 가끔 있다. --- 우리는 어째서 舞蹈이 宗教的 儀式으로서 威力이 있는 것으로 認定되고 頻繁히 쓰이게 되었나를 곧 理解할 수 있다. 卽 이렇게 強力한 印象을 그들 自身에게 주는 運動은 또 그들이 運命을 支配하는 靈的, 惡魔的, 權能者에게도 一定한 威力를 미칠 것이라고 想像하는 것은 原始人으로서의 自然스런 일이다. 이러므로 그들은 幽靈과 惡魔가 놀래 달아나게 하고 그것들을 鎮定하기 爲해서 舞蹈을 하는 것이다. ---」(民謡의 宗教的機能) 8

民族舞蹈에는 이미 同時에 雌雄淘汰의 役割도 負荷되었으니, 가장 元氣強하고 巧妙하고 敏捷한 舞蹈者는 반드시 많은 異性を 魅惑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人種의 改善의 方向에 있어서의 雌雄淘汰에 關한 一媒介物으로서의 役割을 했을 것이다. 우리의 民族舞蹈의 지금에 남은 姿態는 여러가지 가을祭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十月을 上달(上月)이라 일컫고, 天에 對해선 「堂祭」를, 祖上에 對해선 「時祭」를, 그리고 各家庭에선 「고사」를 各々 지내고 部落에서는 「굿」을 하는 風習은 곧 이 遺物일 것이다.

이제 民謡의 宗教的機能에 關聯된 濟州島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백조 할망」에 對하여 簡單히 紹

介하면

濟州島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어서 이를테면 方言은 古代 新羅의 鄉歌 같은 우리 말의 古形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뜻에서 이미 有名하거나와 民俗面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여러 農漁村을 調査해보면 아직도 神話와 宗教가 有機的인 同一體로서 原始的인 古色을 多分히 殘存시켜주고 있다.

濟州島의 이러한 神話나 宗教의 原始的인 遺産을 探問한 바의 하나를 紹介하면 舊左面 松堂里의 堂곳과 그 神話다. 松堂里는 漢拏山 東北쪽 기슭에 있는 廣闊한 草原地帶에 자리잡은 第一 靑이 들어 있는 山間部落의 하나이다.⁹

「백조 할망」은 舊左面 松堂里의 堂神名이다. 堂本鄉 族의 一部句節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실령조
 딸손당은 소천국과 백조 할망은
 서울 남산 송악산서 소사오던
 이이정국 댁님애기
 소천국은 가부간 되난
 촌자아전 오랏구나
 소천국 맞나고 가부간 삼안
 부배간이 살림 살 때
 아들 딸 성제가 떨어질 듯
 막동이는 배였구나
 유동이는 여근애기 밥을 달라
 어린애기는 젖을 달라

9. 張籌根., 韓國의 神話, 서울 成文閣, 1961 P.100

유봉이 굴 왓 도라보니
 벨진 발도 아흔 아홉 세 역
 졸진 발도 아흔 아홉 세 역
 밧 갈아 지별 때
 삼진산의 밧 갈 때는
 늦은 득 정한 남 정심 러연 가고
 머들 우에 노아 두영 가라
 삼진산은 밧 가는 남 촛 잔
 징삼이나 흠 설 달라
 삼진산의 징삼 안내니
 제 밧 삼슬 거던 뜰 댐 흠 설 때는
 문탁 잠수고 전 밧 더라

10

神話는 自然 發生的이다. 神話가 애초부터 一定한 個人作者를 못가지고 原始集團間에서 씩이 터서 점점 꼬리물고 話根이 添加되면서 發展의 길을 더듬게 된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다. 또한 그 初步的인 產出者는 原始의 司祭者 巫堂 이었기가 일수고 그 中에서 集團全體의 心性에 迎合되는 것은 神歌、神話로서 成立이 되고, 그 心性에 맞지 않는 것은 神話로서의 成立을 못보고 自然 消滅된다. 島內에서 蒐集된 說話가 흔히 傳説 民譚 種類로서 이야기가 여러기 堂의 本鄉들이와 같은 要求가 相當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神話는 本質的으로 口誦性을 갖는다. 적어도 日常 會話體의 散文口調는 아니라는 것을 본다.

그리고 오랜 期間 民衆의 품안에서 자라온 것이어서 그
가락이 조속은 巫俗이라 迷信이라 해서 賤視받지만,
우리의 귀에 親密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否認 못한다.
흔히 中國의 옛 文獻들에 國中大嘗니 連日飲酒歌舞
나 했고, 近來 學者들이 이것을 原始未分化 綜合藝術이
라고 하지만 神壇 앞의 그 춤과 노래와 奏樂, 그리고
觀衆에 또한 그 神歌內容을 생각할 때 이것은 原
始歌劇이란 느낌이 切實하다. 따라서 그 神歌가 (即
本質的인 神話가) 韻律美, 形式美를 띄게 된다는 것
은 必然的인 現實이다.

神話는 原始人의 모든 懷疑에 對한 解釋說明
性を 띠고 說明性을 그 本質으로 神話學者들은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原始的 祭儀의 集團歌舞를 亦是 近來 學
者들이 原始未分化 綜合藝術이라고 하나 同軌로서 神話
는 모든 人文科學 自然科學의 原始未分化 綜合體이다.
조속 이 神歌 松堂 本鄉푸리는 그런 意味에서 堂神
백조 할망의 來歷에 對한 說明緣起性を 많이 띄고
있다. "

C. 要約

未分化藝術綜合體인 原始民謡가 人間生活의 複雜함에
따라 藝術도 自然히 綜合體인 形態에서 解體分化하여 音樂,
舞蹈, 詩歌로 分離되고, 口傳文學이 定着文學으로 옮겨 되었다.

그런데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單純에서 漸次 複雜으로 生活感情을 表現하게 되었으며, 鄉土的인 氣質, 風俗, 自然에 따라, 各々 鄉土的 發展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民謠가 原始集團勞動의 律動에서 出發하여 이 노래가 勞動에 對해서 一種의 潤滑油의 機能을 다 하고 作業을 統制하는 役割까지 擔當해오다가, 그 發達에 따라 勞動의 機能外에 政治的 機能, 宗教的 機能, 雌雄淘汰의 機能으로 發展하였다. 即 옛날 迎鼓, 東明舞天等 祭典에 部落民 男女가 盛裝하여 一大歡樂 속에 飲酒歌舞하였으니, 古代希臘의 「디투람보스」나 中國의 「踏歌」나 日本의 「歌垣」와 共通된 民族的歌舞 그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民族歌舞가 곧 政治的, 宗教的 機能을 가졌고, 또한 雌雄淘汰의 役割도 負擔되었었으니, 가장 頑強하고 巧妙하고 敏捷한 舞蹈者는 반드시 많은 異性을 魅惑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人種의 改善의 方向에 있어서의 雌雄淘汰에 關한 一媒介物으로서의 役割을 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安藤 弘., 藝術의 起源, 東京 岩波書店, 1921
2. 任東權., 鄉土民謠의 考察, 現代文學第3卷6号, 1957. 6
3. 張籌根., 濟州島民謠(選), 濟州文化創刊号, 1957. 6
4. ———, 濟州島女神考, 濟州文化創刊号, 1957. 6
5. ———,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6.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8
7. 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第三章 濟州民謠와 民俗

A 民謠에 나타난 民俗

1. 오돌또기
2. 海女 노래
3. 뱃 노래
4. 漁夫 노래
5. 따 밧 노래
6. 나무지우는 노래
7. 밭 밟기 노래
8. 점질 매는 노래
9. 타작 노래
10. 망아 노래
11. 뱃 돌 노래
12. 시집살이 노래
13. 팔자 노래
14. 첩 노래
15. 과부 노래

前章에서 郷土民謠로서의 成立發展相을 大略 記述하였거니와 濟州島만이 尤달리 地理的 歴史的 關係로 閉鎖性社會를 이루고 있었기에 郷土色이 濃厚한 民謠를 간직하고 있다. 위에 든 十五種의 民謠 속에서 濟州島의 風俗, 習慣의 大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우선 濟州島에 關한 歴史的 自然的 背景을 略述할 必要가 있으므로 이제 耽羅 開國에

關於 說話를 紹介하면 이러하다.

「高麗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麓有穴 曰毛輿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 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西海中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一面)

이러한 記錄은 어느 程度 믿을 수 있는지는 別問題로 하고 神異한 傳說로써 祖上崇拜의 思想을 鼓吹하려 하는데 그 意圖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 耽羅國이 언제기 西洋에서는 켈파트島(Quelpaert)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和蘭人 하멜(Hamel)一行이 西紀1653年 8月15日夜 濟州島近海에서 破船되어 官員에게 잡히니 不得已 우리 나라에서 抑留生活十四年間に 걸친 가진 風霜을 겪고 西紀1668年 9月에 Hamel以下 八人이 밤에 脫出하여 日本長崎와 「바다비아」를 거쳐 西紀1668年 7月에 本國에 돌아가 「蘭船-濟州島難破記」라는 冊을 公刊함으로 부터인 것이다. (參考 李丙燾博士 訳註 하멜 漂流記)

「켈파트」라는 이름은 濟州島 南쪽에 있는 加波島의 음에서 由來한 것이라 생각되거니와 其他 文獻上에 나타난 濟州島에 關於 異稱은 耽羅, 毛羅, 耽毛羅, 東瀛州, 涉羅, 儋羅, 屯羅, 島夷, 洲胡國, 耽牟羅, 耽

浮羅等인데 이러한 名稱에 對하여 朴燕岩 趾源의 說이
라 하여 耽羅誌에 紹介된 것을 보면 이러하다

「東國方言 島謂之剡 國謂之羅 耽、儋、淡 三
音 並與剡相類音 蓋云島國也」

이 說에 依하면 耽羅、淡羅、儋羅等은 모두 「섬나라」
라는 意味로 解釋된다. 그리고 耽羅라는 名稱의 由來는
다음과 같다.

「本耽羅國 或稱毛羅 在全羅道南海中 幅員四百餘里
初有稱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 三人分處地 名所居曰都
新羅時高乙那後高厚 與其第二人 渡海來朝 新羅王
喜 號厚曰屋主 其仲曰王子 其季曰都內 仍賜國號曰
耽羅」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一面)

萬一 이 記錄을 信憑한다면 耽羅라는 名稱은 新
羅王이 命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耽羅誌의 記
錄에 依하면 그 後 高麗 및 元의 隸屬國이 되었다가
李朝 太宗二年에 入朝 함으로써 州郡制를 實施하니 耽
羅國은 完全히 滅亡하고 말았다.

濟州島의 位置를 보면 우리 나라의 最南端 大
洋中에 있어 그 面積은 1860 平方浬이며, 中央에
1950 米의 漢拏山이 聳立하고 島의 廣表는 東西가
80 浬, 南北이 40 浬의 楕圓形이다.

北으로 木浦에 88 哩, 東北으로 釜山에 170 哩를 相距
하고 있으며, 發動船으로 木浦에서 約8時間, 釜山에서
約25時間 걸려야 到達할 수 있는 絶海孤島인 것
이다. 氣候는 매우 溫和하나, 土質은 火山灰, 沙礫
等으로 매우 瘠薄하며 全島는 溶岩, 火成岩等으로 덮여
있어 農耕하는데 큰 苦役이다. 島民은 陸地 사람에
比하여 自主力과 經濟觀念이 強靱하여 恒常 부지런히

알한다.

그러면 다음에 濟州島 民謠를 통하여 島民들의 率直한 生活表白을 살펴 보기로 한다. 交通이 不便한 섬이기에 한번 傳해진 옛 風俗은 언제까지나 繼承되어 陸地에서 볼 수 없는 風俗과 習慣을 民謠上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濟州 民謠中에서는 「오돌또기」를 첫째로 손꼽는다. 濟州의 特徵이 適切히 表現되었을 뿐만 아니라 音曲이 E長調 8分の6 拍子로서 速度는 *Moderato* 程度이며 曲想은 輕快하면서도 부르럽고 부드러우면서도 哀愁를 머금은 浪漫的인 노래이다.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가나

(후렴)

동구데 당실

동구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가나

한나산 허리에

시렁계 돈승 만승

서귀포 해녀는

바다에 돈승 만승

오돌 또기
 아기 춘향 노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가나

제주야 한나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성산포 일출봉
 해 돋는 구경도
 좋고 좋고

靑笠 초롱에
 불 붙혀 들고
 춘향의 집
 潛水 질
 하려나 갈가바

金永三 濟州民謡集 p. 22~4
 (此後 金: 民으로 田各)

아마도 이 노래가 島民의 慄悍하면서도 純朴하고,
 純朴하면서도 勤勉하며 樂天的 浪漫的인 本然의 性
 品을 如實히 象徵化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느껴진다.

이 오돌 또기 노래가 언제 어디서부터 始作되어
 오늘 날 普遍的으로 道民의 愛唱하는 바가 되었을까
 ? 이에 對하여는 未詳이나 적어도 百年以前 大靜郡
 (當時 大靜郡)에서부터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본다. 지금으로부터 七十餘年前에 大靜에서 始作된
 所謂「李在守의 亂」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려왔
 다고 하니 그 보다 훨씬 앞선 百年前부터 불려왔

지는 노래가 아닌가 본다. 如何間 이 民謡가 오늘
날 全道民이 즐겨 불러온 바 된 것은 偶然한 일
이 아니라 오랜 歲月을 두고 道民의 心琴과 共鳴
하고 共感하는 바 있었기에 이처럼 愛唱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海女노래

潛女노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濟州島만이 자랑
할 수도 있고 내세울 수도 있는 노래다.

검붉게 윤이 나도록 끄은 健康美를 담백 지나고
筋肉이 發達된 半裸體에 潛水鏡을 쓰고 망사리와
태왁(網罟와 浮具)을 어깨에 매고 손에 낚과
비창(鐵製器具)을 든 勇敢한 모습은 마치 完全
武裝한 戰士와도 같다.

총 각 차라
물에 들게

양석 싸라
섬에 가게

호미 죄라
무래 들게

비창 죄라
점복 떼게

(金: 民: P. 8)

× × ×

이 바당이
은파 굼은

싸였 전만

나의 힘이

없음 으로

전질 수가

없구나

호 — 이

이엿싸 이엿싸

석질 녁질

수죽은 물

달려 드니

암 점북이로 다

x

x

x

秦聖慶 濟州島民謡第1輯
RP 146-147

노래 불령

젓영가자

영주바당

물뭍은 속에

귀한 보물

하서라 마는

물속으로

네젓영가자

(秦:民⑤:P.69)

x

x

x

푸린물걸

출렁이는

한강바당

네를젓영

이섬일가민

진주가 시카

저섬일가민

진주가 시카

풍덩빠전

들어간보난

피기들은

벗삼양놀겐

요래도호록

저래도호록

(秦:民③:P.89f)

우리배는

잘도나간다

산뛰는건

웅매로구나

여뛰는건

요배로구나

요바당이 썰린금은
높은 낭에 여름이여

(秦:民②:P.67)

이여 사나 이여 도사나
넓은바당 앞을 재여
흔질 두질 나아가곡
잔은바당 짚알 재여
흔질 두질 들어가민
저심질이 왔다 갔다
이여 사나 이여 도사나

(秦:民②:P.68f)

이느제랑 열다섯 나건
비영대섬 앞넓은매역
허리알로 줄기레들리

(秦:民①:P.136f)

위에 든 몇首의 海女노래에서 海中의 無盡藏한 寶庫에 들어가 珍奇한 水中의 魚游狀을 볼 수 있으며 勇敢한 氣象을 가지고 必死的으로 作業하는 海女の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대로는 近海에서 뿐만 아니라 陸地各地方(특히 東海岸)에까지 遠洋稼業을 나가는 일이 적지 않다.

環境의 影響을 받아 十五, 六歲가 되면 潛水作業을 始作하여 二十歲쯤 되면 完全한 潛水技術者가 된다. 그리하여 이 海女들은 家計의 도움을 꾀하여 每日과 같이 干潮 때를 기다려 때를 지어 潛水作業을 하며, 將次 넉넉한 살림살이를 마련하려는 意識이 大端히 强하다. 가난한 살림에 적지 않은 經濟的 도움을 가져온다.

濟州島는 地形的 關係로 民家の 大部分이 海邊에 가까운 一周道路 附近에 聚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副業으로 젊은 女子들은 大槪가 海女作業을 배워 家庭의 經濟를 도와나가는 데 그 反面에 肉體的 精神的 苦痛도 隨伴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부르는 民謠 속에서 몇 首 옛보면 아래와 같다.

흔착 손에	비창 들고
흔질 두질	들어가민
저승질이	왔다 갔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돈이 전체	아닌 우제사
요일 흐멍	요고 생 흐라
한강 바당	물아래 드난
태와 돌집	영크려짚영
흔종 일을	요생활 한다

흔푼 두푼	매우던 돈을
님술 값에	다들어 간다
흔푼 두푼	매우던 돈을
가부 님의	갑작골로

말똥이	살똥이
요 금전을	벌민
죽영가민	물민 갑서
대항노로	날 묶어 주라
효종 평지랴	노날 입려 주랴
지화로	봉토를 싸라

은전으로
호당 봐도

담을 흐라
허망 혼 말이어

(秦: 民②: P.61f)

우리님은
방목 님은
철대같이
무정 혼전

무정도 흐다
이내 몸이
물라져도
님으로 구나

(秦: 民②: P.66)

탕당기는
잉잉사는
몬홀것이
모진광품

철성판아
맹정포야
요말이어
불지말라

(秦: 民③: P.88)

해천영업
날대령
고등생복
해천영업
날대령

간식일눔아
가거라
내사삼어
안식일눔아
가거라

(秦: 民③: P.78f)

설룬어멍
즘수물질
이팔청춘
요고생을

무신죄로
날시켜놓왕
꽃결은요름
시키는교

어떤사름
이영물질
잘도구나
우리팔자

팔조조와
안호여도
산다마는
무신팔자

요로록도 못사느냐
위와 같이 海女들의 苦衷을 如實히 엿볼 수 있다.

벧 노래

韓國은 半島로서 三面이 바다로 둘러 있기 때문 배가 많고 또 各地方마다 벧노래가 있지만 濟州의 벧노래처럼 大洋性에 들어맞고 힘차고 역세게 불거지다 다시 이어나가는 울에 가까운 노래는 단 곳에는 없다.

갈매기 휘날리며 노는 南國의 情景속에 힘차게 櫓 젓는 漁夫들의 벧 노래는 四面環海의 濟州島 獨特한 音律이기도 하다.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 싸나
남포등
불 붉은 디
일하기 좋구나

(金:民:P.26)

이여 싸
이여도 허라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산 띄는 건
웅매로다
여 띄는 건
배로구나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金:民:P.28)

물 이러라
 돛 달아라
 강나무 청포로
 달 마름 가자

(金: 民: P. 29)

간들 간들
 강남은 좋아
 간들 간들
 갈 빚름 나라
 사랑 사랑
 실 빚름 나라
 모가 난덜
 배 노아 간다
 물은 싸문
 여이 난다

(金: 民: P. 33f)

어가 두야 산이로구나
 아! 어 허요

너는 누며 나는 누며
 常山 땅에 趙子龍이라
 이어차 디어차 배너머간다

이야 뒤야 너머간다
 우리가 살면은
 몇百年 살며
 아명 사라도
 단 八十 밖에

더 못 산다
아! 어요

뒸다 東南에 새별이 뒸다.
아! 어!

大靜선낭 어진 선낭
아 — 어 —

旌旗선낭 어진 선낭이라
아 —

城안선낭 道솔남선낭이라
아 —

뒸다 輪船이 뒸다
日本서 往來船이로구나
大항구가 뒸다
아 —

타고 덩기는 것은
七星板이요
잉어 덩기는 것은
名旌表로다
아 — 에야 못헐리라

어허 하나님
모진 狂風 부지마소서
아 —

배를 타고 돈을 버러

父母子息을
살리겠습니다.
아 —

모진 狂風은 쓰너바리고
公洞七星壇 무에서
順風에 돛을 다라
萬里風波를
無事히 가나 보세
아 —

海女가 潜水作業을 副業으로 삼듯이 海村의 男子들은 또한 漁業을 副業삼아 農繁期의 奔忙한 時期까지도 餘暇를 보면서 海上으로 배를 띄워 놓는다. 茫々大海에서의 漁船은 危險 속에서 늘 싸우며 狂風이 일지 않기를 祈願하면서 夜間의 海上에서 漁撈作業을 하다가 새벽별을 보고서야 順風에 멀리면서 歸帆하는 風景은 마치 畫幅이며 말 없는 詩라고 하겠다.

經驗이 많은 漁夫들은 氣象台와도 같이 日氣予報를 하면 大概가 틀어 맞는다. 尙或 突變하는 天候를 만날 때엔 生死間에서 必死的인 櫓를 저어 歸港하며, 이를 焦燥히 念慮하는 家族들은 浦口에 나와 無事하기를 念願한다.

原始的인 宗教에 對한 信仰이 깊어서 七星, 船王, 龍王에 가끔 祭를 지내는 風習이 있다. 漁夫들은 大概 부지런하며 純朴하다. 漁業은 濟州島民의 唯一한 副業乃至 主業이 되고 있으나 資金難으로 現代的인 文明器具를 또 는 設備을 갖추지 못하고 다만 貧弱한 漁撈作業으로서 無盡藏한 魚類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은 可惜한

일이다.

漁夫 노래

웅웅 낙시에	백발 술에 닥아
술을 주어서	물어 가라
강남 서온	강갈 치아
갈치가	어디를 갔느냐
저녁 밥을	끓겠다

(金: 民: P. 36)

강남서 돌아온	강갈치아
나술은 썩은	삼술이라
일로 직각	절로 직각
어서 물어	가거라

(金: 民: P. 36)

불락 삼춘	들어 봄서
우럭 조케	무슨 건고
불락 삼춘	간밤에 꿈을 보니
웅낙 시에	걸려져 뵈고
대 구덕에	들어 앉아 뵈고
더운 불도	추어 뵈고
단 불도	추어 뵈고
용상도	타 보고
굽은 절도	말아 보고

(金: 民: P. 37)

海女와 漁夫의 生態를 大略 살폈으니 바다에 對한 것은 이 程度로 그치고 山野에 對한 것으로서 開墾, 林産, 農耕, 畜産等에 對한 面을 살피고자 한다.

따비 노래

火田의 開墾에 使用하는 濟州島 特有의 「따비」라고 하는 연장을 새서 땅을 깊게 파헤친다.

漢拏山麓의 火田 茅田을 開拓하는데는 牛馬에 代은 쟁기로는 到底히 不可能하기 때문 現今도 이 「따비」를 使用한다. 數人乃至 數十人의 農夫가 함께 뭉여 구슬땀을 흘려가며 따비노래를 드높이 부르면서 火田을 農土로 開墾하는 것이다.

허궁아 남따비야

밭이나 잘들라

두가달 따비야

밭이나 잘들라

바벥이나

드금박 만석

알어나라

개돌만이

떡이나 구멍주마

어떤놈은

팔자가 종왕

두가달

데왕 안장

낮잠을 자는교

영 안한들

못 살랴 마는

우리는

먼 날에 나져신교

두갈래 따비야

벥덩이나 크게나라

(金:民:240)

양친 부모
 신 사람들아
 산제 소심
 하소선 하네
 죽어 근녕
 삼괴상 구명
 술 삼잔에
 침작을 한들
 어느 잔이
 구러니 혼다

(金：民：P.41)

漢拏山이 곧 濟州島이며 濟州島가 곧 漢拏山이
 라고 할 수 있을 程度로 全島가 漢拏山으로 덮여 있
 기 때문에 農耕에 適合한 땅이 狹小하여 島 周辺
 海岸附近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기 때문 全島民과
 全耕作地의 比率은 매우 不足한 狀態에 놓여있다.
 여기 原始的이나마 開墾의 利器가 위에 말한 「다비」
 인 것이다.

다음에 伐木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에 앞서 漢拏山
 의 森林을 여기 大略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漢拏山 絶頂에서 四料内外는 眞柏地帶로, 이 地帶
 以下는 躑躅地帶로 數十萬坪이오, 그 以下 四料内外는
 槲地帶인데, 本島獨有의 筏船의 材料가 되고 있다.

그 以下 約八料의 幅內은 大森林地帶로 槲, 櫻
 楓等의 巨木이 鬱蒼하여 白晝가 尙昏하며 이 地帶의
 東南西 三面에는 本島名産인 椎茸栽培地帶라 이
 森林地帶 以下는 往古에 官營의 大牧場地인데 將來의
 大牧場 및 森林造營地로서 唯一한 候補地라 하겠다.

나무 지우는 소리

요 산 중에
 놀 단 남 가
 오 늘 날 은
 지 와 간 다

섞 은 그 는
 산 중 나 무
 오 늘 중 에
 지 와 간 다

높 은 남 에
 앉 은 새 는
 바 람 이 불 가
 탄 식 이 여

얕 은 남 에
 앉 은 새 는
 비 가 올 가
 탄 식 이 여

(金:民:P. 82)

놀 든 남 아
 놀 든 남 아
 와 삭 바 삭
 깨 여 지 라

한 번 깨 전
 금 나 목

두번 깨 건
 둘 되라
 세번 짝 건
 편질 편질
 벌러 지라

요놈 저놈
 골리단 보난
 덩설 맥이
 남았 고나
 한 번 짝 엄
 못 깨 건
 열 번 짝 엄
 깨여 보자
 깨여 지빈
 나의 화복
 못 깨 면
 산중의 남토막
 새역 박곡
 깨엄 시민
 못 깨 남이
 어디 왔어
 요 남 저 남
 무슨 남고
 한 번 끈 엄
 순 만나 는
 사철 푸르 는
 소나무여

(金：民：P. 527)

낭은 팔제
 조아령 낭은
 관덕정이
 대들포 매왕
 일천선비
 절 마람서라
 낭도 팔제
 구저령 낭근
 질 갓 집에
 디덜 팡 노왕
 가고 오는
 관리의 발길에
 노람서라

(金:民:P.86)

산천에 보배는
 푸나무 보배이고
 인간에 보배는
 자식이 보배

(金:民:P.87)

섭지 도깨
 쇠 바위나
 고비 매월
 남 바위나

(金:民:P.88)

樵夫들의 노래 속에 나타내는 情緒를 살펴보면
 山中에 平和스럽게 成長하던 巨木을 伐採하면서 나
 무에 깃들인 새들을 念慮하는 마음을 如實히 나
 타내고 있으며 또 조각 조각 割木할 적에 나무의

결을 찾아 技巧을 부리는 狀과 조개기 힘든 토막은 새역(楔)을 利用하여 조개다는 細密한 現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山의 보배는 나무라는 觀念만은 恒常 잊지 않고 있다. 지금도 濟州島의 山林은 蒼々히 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造林할 餘地가 많다.

農耕面을 살펴보면 播種에서 收穫까지 踏田歌、除草歌、打作노래, 방아 짬는 노래, 그레그는 노래等を 들 수 있다.

濟州島의 土質은 火山灰土로서 가볍기 때문에 조(粟)나 陸稻等を 播種한 後에 잘 밟아주어야 하며 이에 普通 牛馬를 驅使한다. 播種한 後에 밟아주지 않으면 바람에 흩날라서 種子가 露出되어 싹 트지 못할 뿐더러 多幸히 싹이 트더라도 뿌리가 굳게 붙지 못하여 좋은 싹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 발통으로 단단히 밟아주어 흩속대 씨가 박히도록 한다. 數匹乃至 數+匹을 一羣으로 해서 말 보는 사람이 蒙古式 말 보는 소리를 하면, 말들은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말 보는 소리에 대해서 「濟州島實記」에 적힌 것을 보면

「元民이 四方에서 牛馬를 기르며 따라서 牛馬를 모라다니는 소리는 「이러러 이러러 이러러 월 월 월하랴 왕왕 어러러 어러러」 하니 이는 蒙古의 牧牛馬의 風俗이라 ---」

말 밟기 노래

어러러 어러러
요 놈의 물들아
흔저 벨리 볼르라

비시랑 불리거든
 석섬 닷말 지기 불리꼭
 산이랑 넘 거 든
 태백산 이나 넘어 보자

(金: 民: p. 44)

월 월 — —
 이 어 어 이
 어 이 이 다 아 어 어 이
 어 이 다 양 일 천 간 장
 어 이 — —
 아 어 어 이

월 월
 워 러 러 러 이
 이 말 들 아
 고 비 고 비
 돌아 오 라 어 라 라 —

유 월 절 이
 전 후 삼 일 이
 당 했 거 라 고 비 고 비
 돌아 오 라
 산 들 간 들
 부 는 바 람 에
 귀 를 기 우 려 서
 결 어 보 자 월 월 하 니
 십 이 목 이 로 구 나

(金: 民: p. 45 f)

어더러 어 - 야
 어 - 야 이 땅아지 저 땅아지
 上坪田 下坪田 밭아가자
 어더러 어 - 야
 어 - 야 이 모시 저 모시
 제자국 몰라서 디딜 줄 몰라
 디디난 자국만 디디난 구나

(高鼎玉: 民: P144)

노래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六月 절 前後 三
 日에 大部分의 밭밟기가 끝나게 되고 그後 삭이 나는
 것을 기다려서 一次, 二次, 三次 乃至 四次에 行하여
 除草作業을 하는데 때마침 三伏 炎天下에 이르게 되
 므로 一年中 農事에 第一 勞苦가 많은 때가 이
 때이다.

점질 매는 노래

어긴여랑 사디로다
 점질 짓고 끌늬은 발이
 점질 버친 사디소리
 사디로나 우겨근 가게
 혼소리에 두좀 반씩
 교분새로 여의명 가게
 뒷명에야 물너나 가라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앞명에엔 곧아장아잔
 어서 오랜 손을 친다
 손치는 건 낮이나 가고
 눈치는 건 밤이나 간다

(秦: 民①: P165f)

어린여랑	상사대야
사디불렁	요점질매게
죽은목에	번개치듯
넙은목에	배락치듯
글개끝에	불이나듯
검질짓고	글늦인발이
고분새로	여외명가게
앞에가는	놀령새야
조름에오는	돌각바리
왓그락달그락	다쫓아온다
해는보난	서산에가고
월초동정	달쫓아온다
쫓아올랑	방낮이되라
나홀일랑	다후영가게

(秦:民①:P.P156~158)

除草作業은 大部分 女子들이 近隣끼리 서로 도와 「푸마시」로 괴로운 검질매기를 즐겁게 毎日 繼續한다. 男子들은 大概 이 除草隊列에 잘 끼지 않는 것이 普通이나, 間或 二,三名의 男子가 끼면 훨씬 滋味있게 드높이 「사디」를 부르면서 能率을 올리기도 한다.

濟州島의 男子들은 農耕과 播種과 收穫할 적에는 모두 活動하지만 除草와 其他의 些少한 일들은 女子들만이 專擔한다. 다시 말하면 男子보다 女子의 勞働比率이 훨씬 크다.

저는듯한 六月炎天에 婦女子들은 들에 나가 除草하는데 男子들은 집안에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놀거나 정자나무 밑에서 碁로 消日하는 異風俗도 濟州島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濟州島 女性들의 勤勉性과 忍耐力은 全國女性의 模範이 될 만하다. 農事를 主業으로 하는 者라면 어느 地方이나 다 마찬가지로 農作物의 生長하고 成熟함을 每日 즐겨 돌아보는 것이 普通이지만 特別히 濟州島에서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農夫들의 그 마음 더욱 그리하다

「風多」로 이름난 濟州島에서는 收穫期에 들어서도 하룻밤의 暴風雨로 農作物은 많은 被害를 보는 예가 적지 않으므로 完全 收穫이 끝날 때까지는 農夫들의 不安은 풀리지 않는다.

水畝에서 稻作을 주로 營爲하는 陸地의 農家は 濟州島의 農家에 比하면 農閑期가 많고 安逸한 날을 많이 가질 수 있다.

收穫된 農作物은 打作이 加해지는데 이것을 「마당질」이라고 한다. 多量인 것은 運搬의 勞를 덜기 위하여 直接 田野에서 打作을 하지 않는, 大概는 집으로 運搬한다가 마당에서 打作한다. 近者 漸次 消滅되어가고 있지만 收穫된 穀物을 藁은 이삭을 마당에 가득 깔고 밭 밟기式으로 말을 數匹 움직여 打作의 役을 말 밭자국으로 代身하기도 한다. 말 밭자국에 곡식 낱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人力으로 도라깨를 써서 打作할 때 부르는 노래는 아래와 같다.

타작 노래

요것도	고구리
저것도	생고구리
요것은	동산
두드려나	보자
허다	말민

눔이나 웃다

한번 농건
백망울씩
요 동산은
생목 동산
잠을 잔다
허리 지닥
배 지닥말앙
요 동산을
두드려 내자

(金:民:p.90f)

늦언 갈은
모풀과 산디
산디쌀은
산 너머 온다
나룩쌀은
물 너머 온다
불상하다
좁쌀이 팔재
정지 간에
내 놀암서라

(金:民:p.91f)

打作이 끝나면 방아를 쟁게 된다. 요즘은 農村에도 차치 打穀機, 精麥機, 製粉機 등의 登場을 보게 되었다. 아직도 濟州島 農村에선 原始的인 연자방아를 많이 使用하고 있다. 陸地에선 보기 드문 이 연자방아를 濟州島 農村에서는 各 마을마다 볼 수 있다. 筆者

의 고향인 濟州市外都洞에는 約二百戸에 연자 망아는
十餘箇所 있으며, 特別 收穫後에는 每日 奔走히 돌아
간다.

방아 노래

한라 영산
흐르는 물은
피엠토
대동강에
연주 지래
감저게
이여도 방애
이여도 도라

(金: 民: P. 49)

짐벨감 집에
송시 제완
들이젠 허난
트든 들이
고기약 훈다
백긴 개가
삼십리 돈나
이여도 방애
이여도 도라

(金: 民: P. 50)

방에 짓듯
물 지엄시민
살림 못살
지서멍 엇다

(金: 民: P. 51)

이여도 허라 이여도 허라
 이여도 방에 고들베 지영
 저녁이나 붉은제 허라
 본디 저녁 어두운 집이
 오늘이엿 붉은제 허라

(金: 民: P. 52)

방에 지연 역 들젠 허난
 치매 앞이
 전 줄이 나더라
 ㄴ래 ㄴ랑
 역 들젠 허난
 옷 앞섭이
 전 줄이 나더라

(金: 民: P. 53)

방아를 밤을 지새면서 짚는 菩役에 저절로 흥이
 러 나오는 가락진 것이다. 暗澹하고 음막히는 運命까지
 지를 입에 돌려 뉘뉘하며 부르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이 방아에서 짚어진 精穀은 島民의 主食物이
 되는데, 여기서 參考로 알아되어야 할것은 濟州島에는 水畝
 이 적기 때문 農民의 食糧은 夏節에는 麥穀 秋冬春
 三期에는 粟穀과 陸稻, 大豆, 小豆, 고구마 등의 穀物과
 副食物이다. 그래서 白米는 陸地에서 搬入되는 것에 依
 存하고 그 代身 海産物, 魚類 등이 搬出된다.

雜穀을 主食으로하는 濟州島에서는 白飯을 「근밥」이라
 고하며, 農村에선 冠婚喪祭 때나 或은 貴賓接待에만 볼
 수 있을 程度이다.

麥米는 炊事時間의 經濟와 味覺을 爲하여 半조각
 을 낸다. 이때 使用되는 것이 ㄴ래 (맷들)이다.

陸地에서도 맷돌을 쓰지마는 濟州島에 比하면 使用 頻度가 아주 적다. 따라서 맷돌 노래는 濟州島에서는 가장 많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다.

周道山은

「이 맷돌 노래는 濟州島의 婦女 사이에 많이 불리우는 것으로 率直한 感情의 發露와 哀切한 苦悶의 心情이 잘 表現되어 있다. ---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韓國의 南端에 있는 未知의 꿈의 나라인 絶海의 孤島의 婦女들의 生活相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이 섬의 노래가 感傷的이거나 頹廢的이 아니고, 官能的인 것은 이 섬의 女性들은 어려서부터 生産面에서 男性을 代身한 勤勞者이기 때문에 그러한 官能的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맷돌 노래

一.

서울 서울	멀어라 해도
가난 들아	오라라 한다
저승 길은	朝飯前 길이어
가난 올줄	몰라라 한다
설어 죽은	무덤이 시여
돌시나마	돌아오지 말라
命도 짹아	무덤이러라
얼굴 좋다	질겨도 말라
나무 간장	석이려 한다
술이 좋다	질겨도 말라

二.

서울 가도	三 晝에 온다
-------	---------

江南가도
요도삼국

三年에 온다
몇날에 오리

三.

사랑 사랑
나무칼에
나무뿔에
서론어멍
어느 바다
바람일적
구을리어
瀛海바다
어느 날은

남 사랑 날에
손으란 베어
고생이러라
날베일적에
매역을 먹어
절일적마다
못사라서라
갓없는 내몸
갓이나 살이

四.

높은 남에
어느새라
새벽 람은
임相思에

새 앓아 운들
우러니 한다
寂寂이 운들
못 일어나라

五.

서울물은
내父母가

銀석은 물여
다마서서라

(中國各)

八.

나무꽃과
소리나고
씨앗이라
같은 발에
히웠듯이
소녀눈에

솔 나무 바람
사를매었다
싸우러가니
메미꽃같이
나 앓아서라
저만 한계집

임의 눈에	제아니들라
어느 물에	龍아니 놀며
어느 남에	새아니 놀리
훤의 방을	가만히 보니
龍인 듯이	나누어서라

(周王山: 民: RD98~100)

ㄹ래 ㄹ는 노래 (맷돌을 ㄹ래라 함)

이연 이여	이여도 ㄹ래
설은 점에	걸어간 짚은
질이 쪼차	지우려 진다
이연 이여	이여도 ㄹ래
ㄹ래 ㄹ래	에헤에
풀아가도	지난흔 ㄹ나
풀찾 ㄹ랜	다 풀아가도
불를 놀랜	수만정 없다

이연이여	이여도 ㄹ래
ㄹ래 ㄹ래	요 ㄹ래야어
누게님이	놀던 ㄹ래
ㄹ니 무로	즈녀가 놀던
ㄹ래로구나	이연이여
이연이여	이여도 ㄹ래
요 ㄹ래야	지남석 ㄹ래야

(金: 民: P. 62f)

이연이여	이여도 ㄹ래
저래가는	저 치녀야
뉘를 보고	왼손을 치느냐
나를 보고	손을 치엄전

흔 발을
가는 손을
이연 이여

일 위 됴 가라
걸어 매느냐
이여도 ㄴ래

(金: 民: P 67 f)

이연 이여
산섬 이도
물섬 이도
돈아 돈아
돈 전 치가
늙은 부모
어린 동생
요런 곳을
내와 지리

이여도 ㄴ래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산다
말모로 돈아
아니 민
이별 ㄴ곡
느려 두엿
어디라고

이연 이여
청청 소년
백발을 보고
속이 늙엿
드라 드렁
드라 드렁
수물서른
이내 몸은
늙어진 다

이여도 ㄴ래
아기네들아
비양을 말라
백발이여
수물이 넘고
서른이 넘엿
넘어시 민
소곡소곡

이연 이여
저산천은
꼭깃 꼭깃
이내 몸은

이여도 ㄴ래
철철 마다
끓어나가고
늙어지 민

젊을 줄을	모르는구나
저 산 천은	동도 매고
곳도 피어도	이내 몸은
동도 아니 매고	곳도 아니 핀다

이연이여	이여도 그래
동지섯들	지나진 밤
아자신들	좁이나올가
누어신들	좁이나올가
녹수청산	무정 뉘은
양늘개를	둑닥 치명
질게 우는 그나	
날은 새고	뉘은 울어도
정든 남은	아니 온다
이연이여	그래
이여도	그래로다

이 땃들은 아무리 돌려 갈아도 끝이 날 줄 모르는
運命의 그나플을 쥐고 돌아가듯 限이 없으며 「이연
이여」 「이여도 그래」를 연역어 불러 예이면서 그래를
그는 婦女子들은 여름 한밤 새벽 달도 보도록 限
없이 끝면서 속 시원히 땃힌 情恨을 노래 부른다.

播種에서 부터 收穫에 이르기까지의 農事에 関한 것은
略述하였으므로 이만 그치고, 다음에 婦女子間에 많이
불리우는 「시집살이 노래」 「八字노래」 「혼노래」 「寡婦
노래」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것들은 全國的으로
類似한 노래를 볼 수 있으나 濟州島의 鄉土的인
趣意가 잠겨 있는 몇篇을 들어 生活相을 더듬
어 보기로 한다.

시집 살이 노래

나 노래
 산 너명 가라
 니 노래
 물 너명 가라
 불 넘은 데
 아방이 살고
 산 넘은 데
 어명이 산다
 물도 산도
 넘지나 말앙
 요집 올래나
 지너명 가라

(金 : 民 : P. 104)

구쟁기 님은
 시아방에
 암돌 님은
 시어명에
 뭉개 님은
 서방님에
 졸락 님은
 시누이에
 이네 씨집
 살젠 하난
 고치 쟁이
 맴다 한들
 요내 씨집
 사느 짓보다

더매우라

(金 : 民 : P.105)

점 은 오 름
상 아 들 에
밤 에 중 석
낮 에 정 심

이 참 봉 집 이
메 누 리 들 영
먹 은 배 웃 다
먹 은 배 웃 다

(秦 : 民② : P.99)

놈 도 가 는
우 리 어 명
가 시 짓 고

질 이 언 마 는
날 보 낸 질 은
뒤 짓 어 서 라

(秦 : 民② : P.102)

동 데 에
설 혼 되 를
연 삼 년 을
삼 시 꾀 영
배 을 출 련
그 손 대 언

동 부 제 집 에
꾸 았 다 가
뭇 물 어 올 영
삼 년 에 무 난
열 닷 되 러 라
줄 봉 서 나 라

(秦 : 民② : P.103)

좀 좀 이 모 완
시 상 사 름
시 등 세 가
산 외 다 리

지 세 집 호 난
다 칭 찬 호 고
훈 집 에 사 난
끈 어 라 훈 다

(秦 : 民② : P.126)

지 서 명
암 외 끝 이
간 이 수 심

질 든 지 으 섬
가 름 에 들 영
지 와 라 훈 다

(秦 : 民② : P.127)

아 들 남 고

딸 남 은 어 명

삼지 님은 모난 말 말라
모난 뜰에 정 맞 암 서라

(秦:民②: P.120)

가라 오라 다리는 집 이
돌 암 들 멍 삼 년을 사 난
가 랜 말도 어서라 어서라

쇠 누 이야 쇠가장 말라
느 도 가 민 쇠 녁 이 더라
나 도 가 민 어 멍 아 방
아 니 가 난 그 리 멍 산 다
느 네 집 들 어 디 앵 오리
느 오 래 바 전 치 꽃 아 니 민
느 네 집 을 어 디 앵 오리
가 라 오 라 다 리 지 말라
먼 정 밖 이 신 벗 인 나 여
신 영 가 민 맥 이 로 구 나

(金:民:P.106)

羞恥心과 憧憬心이 半半으로 엮어진 處女時節의 꿈
이었던 「시집」을 막상 오고 보니 생각하던 바와는 달
라서 封建的인 家風에 따라야 하며, 媳父母와 媳家
同氣間에 和睦과 服從도 하여야 하며, 媳家에 따라
서는 며누리에 對한 虐待가 너무나 期待와 相反됨을
覺하게 되며, 따라서 親庭이 그리워지고 때로는 나
를 낳고 기르고 시집 보내준 어머니를 慈母까지 하
다가도 忍從으로 辛苦를 克服해 내니 살 수 있는
것이라는 率直한 表現을 엿볼 수 있다

八字 노래

가지 좋고 앞 좋은 때엔
전심 새가 다 모여 들단
가지 지고 앞지여 부난
빙든 새도 지너명 간다

(秦:民②: P.146f)

고향은 점점 라향이 되고
라향은 점점 고향이 되고
팔 제 전심 꽃이 랜 몸은
산 짓 물에도 궁곤 팡 초지

(秦:民②: P.148)

나 남은 나아방시먼
놈의 아방 으셔도 산다
나 남은 나어명 시먼
제심 윤넬 어명 아후라

(秦:民②: P.150f)

돈아 돈아 말모론 돈아
돈웃고 보민 적막 강산
돈싱고 보민 금수 강산
돈있는 적인 성님 성님
돈 떨어지민 자네 야네

(秦:民③: P.155f)

넘어가는 심방광 정시
요내 스주 풀리어 도라
원천 강의 스주엿 후건
유너 지는 말아근 가저
원천 강의 나스주원 후고
머리 깎앙 절에 나가저

(秦:民②: P.153)

썩틀인제	열인젯섬엔
놈이운들	내음올리아
구석에아진	부모카시민
올명달랴	대기가시라

(秦: 民②: R 165)

아방싱근	정조낭그늘
어명싱근	무이낭그늘
그늘이상	꽃이라마는
그디아장	놀조를웃다

(秦: 民②: R 166f)

아방도사	맹조르코
어명도사	맹조르코
맹이조른	나부모몸에
내가아니	낫대민호라

전봇줄이	떨어진것은
철쇠로나	잊어나준다
요내님과	정떨어진진
금전을드려도	이실수없네

설룬애기	솜솜흔얼굴
눈에솜솜	열리열서라
설룬애기	쟁쟁흔소리
귀에쟁쟁	열리열서라

(秦: 民③: R 188)

팔자가 사나우면 녀두리 석섬이라고 한다. 사나이의 팔자가 꽃어도 군 말이 많은데 더구나 女人们的 팔자가 알꽃어서야 어찌 푸리가 나오지 않으리오

早失父母하여 孤獨한 子息의 서러움, 義父나 繼母
에 시달리는 不運兒, 結婚生活에 失敗한 외로운 靑女霜
의 歎息소리, 貧困에 허덕이는 悲慘相, 부질 없이 늙어
가는 無常, 金錢 때문에 他鄉稼業을 不免하여 他鄉
사리에 어린 子息생각, 父母不孝를 애달게 생각하는
노래等 内容에 있어서 濟州鄉土的인 모습을 볼 수 있다.

妾 노래

놀멍먹젠	놈의 妾드난
놈의 종이	반일러라
시름쉬젠	새몸에 가난
더사시름	지어라 혼다

(秦:民②:P.195)

물이 으성	훈물을 먹꼭
질이 으성	훈질을 걸은들
속 광쌌사	제어딜 갈고
씨앗전아	강살음말라
질예보전	벗으로알라

(秦:民②:P.195f)

상덕을 보컨	밀으르 가고
스랑을 보컨	첩으르 가라
가다오다	만난님은
정으르나	살아가고
씨집가고	장개간님은
벗으르나	살아가고

(秦:民②:P.196f)

양반이사	시첩을 혼난
맹지바지	시혀킬러라

쌍놈이사 시첩을 호난
양왜닭양 불나라 혼다

(秦: 民②: P. 197)

이년저년 잡을 년아
그놈하나 되어 지언
이년저년 두세 맛이
어평 호영 살아 갈고

(秦: 民②: P. 198)

이런 좌수 첩으로 드난
흔 돌에도 스답이시불
손 에 평이 지어라 혼다

(同上)

즈들일 웃전 양첩을 호목
쌍놈의 벳을 사귀라 혼다
미운 놈보권 딸하영남곡
질나는 발을 버실라 혼다

(秦: 民②: P. 199)

본처소박 양첩한놈아
한강바당 가운데드렁
가을말헛 달진밤새라

(金: 民: P. 116)

지서명광 오름옛돌은
둥글당도 사를매난다
놈의첩광 소낭기벗름
소린나도 사를매웃다

(金: 民: P. 119)

스므나무 설나브네
팔자구정 여드님사난

신을신도 못 얻어친곡
투불세불 물덜호밥을
쌈어도랭 양영미려라

늙은놈이 젊은첩호난
합체바당 물거리륙
팔제전승 기박호영
어왕어왕 울엄서라

(金：民：P. 123f)

濟州島 俗談에 「妻이라면 부처님도 돌아 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女多」의 섬인지라 糟糠之妻를 두고도 妾을 거느린 生活를 볼 수 있다. 若干 奇異한 處는 女 子의 境遇、運命이라고 諦念함인지 內面의 嫉妬心과 憎惡心을 外面에 나타내지 않고, 特別 騷亂한 「시애틀」은 若干 變기 多물다. 忍耐力과 和合心の 所以인자 或者는 男便을 中心으로 두 女人이 團結하고 協助하는 家庭도 볼 수 있다. 其中에는 大概 男便에게 經濟的인 依存을 하지 않고 各其 生計를 維持해 나가는 것도 濟州島 女學生들의 勤勞精神과 經濟觀念이 두터운 탓이라고 본다. 노래에 나타낸 內幕을 一覽하러 보면 安逸한 生活를 꿈꾸고 妾도렸으나 好衣好食도 못하고 愁心만 생기고 苦生이라는 것과 돈만 보고 年老者의 妾으로 들었더니 그 시중의 괴로움을 訴하엿으며, 男子가 죽으면 앞 判이 茫然하니 妻와 妾이 協心하여 男便을 모시자는 妥協派도 볼 수 있다. 아무리 四柱八字가 貴어도 貧의 妾生活은 하지 말라는 警告의 句節도 있는데, 大概 人生의 孤獨感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經濟的인 도움을 바라서 妾生活을 하는 예는 若干 적다는 것이 他地方과의 다른 處이다.

寡婦 노래

濟州島에는 寡婦가 많다. 이는 곧 女子가 많다는 證
左인데, 人口調査에 나타난 比例도 男子보다 女子가 많
으며, 特別히 六十歲以上の 高齢者면 그 差가 더욱 甚하니
男子보다 女子의 平均壽命이 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靑娥婦人도 있지만 男子가 海外로 稼働나갔기에
所謂「산 과부」의 數도 그 比率이 頗 높다.

如何든 靑娥에서 老衰할 때까지 그 알곳고 외
로운 運命속에 살면서 때로는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親近한 벗도 되고 自慰의 푸념이 되기도 할 것이다.

濟州島의 寡婦 노래는 量的으로도 豊富하다.

스물 다섯	방광에 죽영
흔백 상지	양옆에 놓으난
눈물로	수만 관하더라

(金:民:P.154)

열 두 간장	다섯은 물은
숫아 올란	눈으로 나난
열 손 받아	씻어라 한다

(金:民:P.154f)

부령 청진	가신님은
돈을 벌영	오전 마는
곰동 묘지	가신님은
식개 대만	오는 구나

(秦:民③:P.148)

칠월이라	칠석일에
전우성과	직녀성은
일년 열두달에	상변을 하건만
이 내방군	어딜가고

상면 한번
그도 설와

못 하느고
똥살 더라

(金: 民: p. 163)

강남 갔던
일년 혼번
정든 남군
살아 혼번

재비 새도
만나 건만
어딜 가고
문 보느고

(秦: 民③: p. 135f)

님 갈 적에
으름 을 안
님 오 기 만
님은 가 난

심겨 든 배낭
먹 더라 마는
그리 명 석도
아 니 오 더라

(秦: 民③: p. 140)

님 웃어 도
똥 웃어 도
님과 똥은
님과 똥은

날 새 이 더라
날 새 이 더라
잇 이 나 마 나
웃 어 도 산 다

(秦: 民③: p. 141f)

바 당 절은
긋 딛 절은
님은 무사

긋 절을 울리고
여 울을 울리고
날 울 리느고

(秦: 民③: p. 146)

산 도 좇 이
우리 조 선
저 래 가 는
내 좇 이 다

물 도 좇 이
총 독 부 좇 이
저 총 각 은
내 좇 이 다

(秦: 民③: p. 152)

님 갈 적에

허 터 진 머리

늪게 괴정
영결 종천
누결 보양

분성적호리
머나먼길에
나뎡라가리

(秦:民②:R.27f)

대천바당
어느배에
맹지바당
귀에쟁쟁
남도배도

배 많이 댄들
님을 줄알리
실낱을 붙어
을릴 적에
안오라서라

(秦:民②:R.28)

을먼 실명
홀로 아자
발신 데레
아는 놀이

춤으멍 살앙
서른 눈물을
지우멍 봐도
호나 웃더라

(秦:民②:R.37)

을지 말젠
글글 아잔
저절로 도

먹심을 먹언
생각 호난
눈물이 난다

(秦:民②:R.37f)

저산천사
님을 믿은
흠광돌이
언절간들

변하전만
요내먹심
바이여진들
변홀리시라

(秦:民②:38f)

청청파수
피통안고
죽을액은
증소리가

저홀로 삼은
을고서왔나
호목에 드난
두울룩난다

(秦:民②:P.41)

청청소년에 돌아간 부덤
 청상과부 제홀로 살 았
 이 삼년을 못지내 칸도
 살 았시난 지내여 저라

(秦:民②:P.41f)

동지섯돌 진진 밤에
 아자시민 남이올까
 누어시민 즈미올까
 남도 즈도 아니오난
 비단 혼동 내여놓고
 은그새를 집어그저
 즈박 즈박 믈르긔고
 핫저구리 수접긔여
 짓누비고 섭누비고
 스미양독 다누벼도
 일광남도 아니솟다

젊어서 男便과 死別하여 青孀寡婦의 몸이 되어 남
 그리는 마음 懇切함을 如實히 表現하고 있다.

江南 갔던 제비도 돌아오는 三月、一年에 한번 鶯女
 織女가 만나는 七月七夕이면 더욱 가슴이 설래이고, 남이
 심어두고 간 梨木에 結實이 되어도 남은 不歸의 客이 되
 었음을 歎하며, 一片丹心 남을 생각하는 마음 永遠토록
 不變할라니 二.三句 고비 넘기기 힘들음을 克服하면서
 冬로 선달 기나긴 밤을 바느질로 時間을 보내는 안
 타까운 心情等を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원정노래」 「사친노래」 「자장가」 「양래
 노래」 「상여노래」 「달구노래」 「동요」 등에도 많은 民

俗을 찾을 수 있으나 다음章에서 閑聯을 맺고 記述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한다.

B. 民俗의 特異性

前項에서 民謡에 나타난 民俗(風俗, 習慣)의 處景을 閑聯되는대로 大槪 記述하였으나 이제 또한 陸地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民俗을 大略 考察함이 民謡研究에 그 環境的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民俗學者 宋錫夏는

「濟州島의 異俗」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南溟의 끝 濟州島는 그대로 傳說의 나라요, 詩의 나라다. 이 곳을 瀛州에 비기는 것도 그에 依함이 아닌가한다. 三乙那의 基地요, 女將軍의 나라라는 말은 그만 두기로 하고라도 只속도 語弊가 있으나, 濟州島의 文化形態와 本土의 文化形態와는 確實히 相違한 處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學者中에는 이것을 遼歸文化圈이란 단 말을 쓰는 이도 있는 것이다.」

傳說의 代表的인 것을 몇가지 紹介하면

金寧堂 傳說

金寧은 城內 東海邊으로 約五十里가량에 있는 村落인데 東上으로 約三馬場쯤 올라가면 大窟이 있어 延長十餘里를 通하고, 高가 七、八丈이 되고, 廣은 五間餘이나 되는데, 그 곳에 요망(妖蟒)이 있어 크기가 窟의 半이나 되고, 큰 귀가 달렸으며, 恒常 窟에 있어 作妖하니 上古에는 牧使와 土民이 祭를 하되, 酒食을 많이 하고, 滿十五歲 處女로써 祭需를 代하였다. 萬一

그렇지 아니하면 風災, 雨災가 終歲도록 그치지 아니한다 하여 土民과 牧使는 極히 이를 敬畏하더니 中宗朝 十年 開國 124年에 判官 徐憐이 赴任하여 風俗을 물으니, 吏屬等이 窟의 然故로서 告한데, 徐憐이 그게 놀래며 曰 妖物로 因하여 어찌 無辜한 處女의 生命을 殺害하라 하고, 春期에 軍校 數十人을 擇하여 鎗劍, 炮硝, 薪炭 등을 準備하고 如前히 設祭케 하였더니, 果然 大蟒이 出頭하여, 將次 處女를 噉하러 하거늘, 徐憐이 手鎗으로 勇猛히 大蟒의 머리를 찌르니, 諸校들도 뒤를 따라 一齊히 쫓러 大蟒을 죽인 後, 그 屍身을 끌어내어 燒火하였다.

徐憐은 餘弊를 다 整理하고 馳馬入城할 세, 忽然 뒤으로 紅色의 氣運이 보이더니 徐憐이 官衙에 이르러, 昏倒不省하고, 마침내 死去하였다. 村民은 더욱 判官의 죽음을 異常히 여겼으나, 이로부터는 大蟒의 妖凶은 없어 졌다라, 그러나 또 同村南上에 窟이 있으니 名曰 豚窟이라, 大豚을 犧牲하여 至속까지 春秋로 祭를 하여, 除厄受福을 願하고, 他村으로 移居하여 있어도, 遠近을 勿論하고 一年一次式 窟까지 와서 祭를 舉行하며 또 무엇이든지 新味를 보면 窟에 祭한다.

根元은 未詳이나 支那元民들이 金寧에 居住하여 祭지내든 遺風 같다. 上記에 紅色氣運이 났었다는 말은 訛傳같다

廣靜堂의 傳說

山西便 大靜 山房山下 路邊에 淫祠가 있으니, 堂主는 그 亦 大蟒이라. 지나는 사람마다 그 곳에 이르면 禮拜하고 또한 乘馬한 사람은 下馬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馬足이 蹇한다한다. 肅宗朝 28年, 開國 311년에

牧使 李衡祥이 巡行할 때에 廣靜에 이르러, 吏輩가 下馬를 請하거늘 牧使가 理由를 물은데 吏輩가 말하기를 이곳에 淫祠가 있으므로 下馬치 아니하면 馬足이 蹇한다 함으로 牧使가 그를 不聽하고 지냈더니, 果然 蹇跪하여 不行하거늘, 牧使가 親히 그 堂에 이르러 巫覡으로 하여금 馬를 刑殺하여 祭하라 하고, 그 鬼神 보기를 求하니, 大蟒이 出現하여 司命旗를 毒齧하려 하거늘, 이에 牧使가 大蟒을 斬하고, 堂을 燒하였으니, 이로부터 衡祥이 堂寺의 毀撤을 主唱하였으니, 堂은 五百오, 寺는 百三十餘 곳이라.

다 燒火하고 僧侶와 巫輩는 다 官隸로 定하여 버렸다. 그 後로 僧侶의 害毒과 巫覡의 弊害는 根絶되었으나, 廣靜堂의 附近民은 至今에도 그 堂을 위한다 한다. 그 亦 支那元民들이 그 附近에 居住하며 위하든 神堂같다

徐市의 傳説

上古 秦始皇 時節에 方士 徐市라 하는 名士가 있어 始皇의 寵愛를 받든 바 一日은 始皇의 뜻을 맞추어 三神山에 不死藥說을 奏達하였다. 慾心 많은 始皇은 即時 「不死藥」 하더니, 徐市를 命하여 不死藥 求해드리라 하였다.

徐市는 이 命을 바들고, 崑崙山 千年古木을 베어 方舟를 짓고, 童男童女五百人과 同乘하고 黃海에서 배를 띄우고 渤海中에 中流다가 瀛洲山下 朝天浦에 배를 碇泊하고 其時 仙人의 食料中 「버섯」을 캐었다 하며, 西歸 正房瀑布와 朝天浦 岩壁에 「徐市過此」라는 書蹟을 남기고 東으로 向去하니 이 書蹟은 千古神秘의 奇蹟이라 하였다.

雪漫頭姑의 傳說

옛적에 한 神女 있었으니 俗稱 설만두 할망(本島方言)이라 하고 이름은 娑麻姑婆라 하니, 그 身長이 거의 하늘에 다을 듯 하라 한데 손으로 漢拏山을 잡고, 발로 滄海의 물결을 戲弄하며, 土壤을 움켜 峰을 만드니 그 爲人이長大함은 可想이라. 恒常 말하여 曰 이섬 사람이 나를 爲하여 一着衣를 지어주면 그 報酬로 내가 만드시이 섬에서 大陸까지 連橋하여 徒步로 往來케 하고 航海하는 困難을 免케 하리라 하며, 勇氣를 북돋아 하마드면 다리를 놓을 번 하였으나, 애처로운 것은 그 時 島人이 力拙하여 要求한 一着衣를 酬應키 不能하였으므로 다리 問題는 마침내 進捗이 못되고 말았다. 그러나 朝天串이 其時 作橋하려든 痕跡이라 한다. 門東 新村 岩上에 巨人的 발자취가 있으니 俗에 설만두 할망 足跡이라 稱하고 그 외에도 傳會의 說이 많다.

風俗的 燃燈神

燃燈의 起源은 未詳이나 傳說에 支那商人이 海境에 漂流하여 죽은 바 四체가 分解하여 頭骨은 魚登浦에 이르고, 手足은 高內, 涯月, 明月浦에 오르니, 이러 함으로 每年 正月 晦時에 바람이 西海로부터 불어 오면 燃燈神이 降한다 하며, 沿海邊 居民은 巫覡을 請하여 野祀를 지내고, 밤이 낮되도록 槎形을 짓되 馬頭와 같이 하여 彩帛으로 꾸미고 躍馬戲를 지어서 神을 즐겁게 하며, 二月 旬望에 이르러서도, 假舟를 造作하고, 帆幅을 깎추어, 浦口에 띄우며, 무당의 呪文으로써 淸々히 別式 神式을 行하여 送神하면 그 때에 東北風이 불며 神이 간다 한다. 二月初一日에 淸暖하면 옷 벗은 燃燈이 왔다고

비가 오면 우장 쓴 燃燈이 왔다하니 이는 巫覡이 하는 말이다. 二月初로부터 望後까지는 放船아니하고 燃燈神이 지나가면, 海族을 다 捕食한다 함으로 沿海邊에 蛤螺蠣等이 空壳이 있으면 燃燈神이 捕食한 緣故라 하며,至今까지 送神하는 風俗이 流行한다.

山西 頭毛浦는 迎神浦요, 山東 牛島浦는 送神浦라 稱하고 있다. 이 風俗은 海 부리는 사람이나 海女等이 主張하는 風俗이라. 迎神과 別送神하는 때에 祝文의 呪文은 아래와 같다.

恭神、降神、玉皇上帝 前位께 알외옵나이다.

燃燈할멈 燃燈할아범 二月初日 오셨읍니다.

限十五日間 苦生하셔서 罪悚합니다

十三日날 하는 呪文은 아래와 같다.

이 좋은 날에 할멈 할아범 떠나게 되니 굿을 합니다. 十四日까지 굿을 하오니 좋은 順風에 떠나옵소서. 내려서면 굿어보사. 天正人間 차지한 三神佛道, 물 차지 黃河水요, 바다 차지 東海廣德王, 西海廣仁王, 南海에 廣神王, 北海에 天神王, 東海에 堯王 높은 神位, 燃燈할멈, 燃燈할아범, 비가 오면 우장을 씁니다.

燃燈東房, 燃燈戶房, 先俳, 後俳, 左右先後俳를 세워 二月初日 들어오고 十五日에 나갑니다. ---

이와 같은 呪文을 자주 외우고 굿을 한다.

「東國輿地勝覽」에도

「濟州俗是月禁乘船」이란 文句로서도 基料의 有하다.

「東國歲時記」에

濟州俗凡於山池邱墳 紆木石俱設神社 每月元日

至上元 巫覡擊神纛 作儺戲 鉦鼓前導 出入閭里
民人爭損財錢 以賽神 名曰花盤

이란 文句가 有하나 現在에도 그와 똑 같지는 않으나
大略 同一한 行事가 있다.

燃燈神에 對한 文獻을 찾아서 附記하면
「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條에
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竿十二迎神祭之--- 至望日
乃罷謂之燃燈 是月禁乘船.

以上 傳説 몇가지를 들었으나 이 밖에도 많은 傳説이
있다. 이들 傳説 속에는 非科學的인 要素가 많이 內包되어
있지만 濟州島의 傳説은 다른 文物이 島民에 依해서 오
래 傳承되듯이 또한 原始的 宗教라고 볼 수 있는 巫俗
이 꽤 많이 남아 있다.

다음에 島民의 生活面에서 特異한 風俗을 찾아 보기
로 한다. 便宜上 衣, 食, 住面을 먼저 살펴 보면

첫째 衣에 對해서. 火田民들 間에 皮服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蒙古遺風인 듯 하다. 獸皮
로 만든 帽子에 毛皮圍衣에 毛皮鞋를 신고 있다. 近來
차차로 그 數가 減退되어 가고 있다.

또한 勞動할 때에는 「갈옷」을 입는다. 이것은 木棉
服에 靑柿汁을 染色하여 赤褐色이 된 뽕뽕하고 질긴
作業服으로서, 洗濯한 뒤에 풀이나 다리며질할 必要가
없는 簡素服이다. 먼지와 티끌도 털면 잘 떨어지는 것
으로서 勞動者에게는 가장 實用的이며 經濟的이라고 할
수 있다.

陸地에서는 田野에서의 作業時에도 白衣를 입는 習慣
이 있는데, 이는 時間的 經濟的으로 莫大한 損失을 보
고 있는 것이다. 어서 實用的인 作業服으로 代替할 必要

가 있음을 筆者는 切實히 느끼는 바이다.

濟州島民은 農閑期에나 外出時에도 大概 儉素한 衣服차림을 하고 奢侈할 줄 모른다. 名節 때에도 어린 애들의 때때옷 입은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 지경이다. 平素에도 一般的으로 무식 옷을 많이 입는다.

婦人들은 머리에 手巾을 쓰는 習慣이 있고, 不經濟的인 흰 버선은 特別한 境遇外엔 신지 않고 普通 양말을 많이 신는다. 한 마디로 풀어서 말하면 實用的이고 經濟的인 衣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食生活을 살펴보면 人口에 비하여 耕作面積이 좁고 더구나 水田이 極少하여 稻作이 적으므로 島民의 主食은 麥米, 粟米等 雜穀이며, 上流生活하는 家庭에서도 純白米飯은 避하여 混食을 하며, 食糧節約의 一策으로 多量生産되는 高구마를 副食으로 混用한다.

「風多」의 섬이기에 바람으로 인한 凶作을 恒常 予想하기 때문 豊作일 때에는 勿論, 平作만 되어도 으레 應分의 貯藏米를 마련해 두는 貯蓄性이 이 섬 農民의 共通된 處이라고 하겠다. 濟州島의 海産物과 家畜(馬, 牛, 豚)은 陸地의 白米, 棉布等과의 交易物로서 島民의 食難解消策의 重要な 자리를 차지한 副業이다. 食生活亦是 素朴하기로 全國에서 首位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셋째, 住居는 「石多」의 惠澤으로 全部가 돌 집이며 울타리도 돌로 쌓아 올린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 草家의 지붕은 새(茅茨)로 덮고 굽은 새 줄(茅索)으로 바둑판의 눈처럼 縱橫으로 얹어매어 二年間의 風雨를 막는다. 結局 隔年으로 盖屋한다. 石造草家이므로 冬暖夏凉의 利가 있으며 簷端과 門戶가 높으며, 普通 退窓을 使用하지 보기에도 快豁하다.

다음에 生活面의 斷片을 記述하여보면

○結婚後의 別居 — 子女가 結婚하면 大概 別居시키고 父母는 自力으로 活動할 수 있을 때까지는 子女들에게 扶養받기를 願치 않고 生計를 維持해 나간다. 따라서 우리 나라 古來의 大家族制度의 弊害를 防止할 수 있으며 흔히 보는 「며누리의 설음」도 解消되는 獎勵할 만한 習慣이라고 본다.

○養兒의 風俗 — 아래가 난지 三日이면 竹籠(아기구덕)에 편히 눕히고 자장가를 부르면서 搖籠해준다 이는 中國 江南의 遺風인듯 하며 負兒하는 式은 日本 風과 彷彿하다.

○婦人의 鬘은 머리 — 아직도 中年以上の 婦人들은 남자를 아니하고 머리를 鬘는데 古俗이 그대로 殘存한 것이나 漸次 消滅되어가고 있다.

○허벅 — 섬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陶器의 一種으로서 대바구니에 넣고 등에 지고 다니며, 머리에 이고 다니는 법이 전연 없고 모든 무거운 짐은 등에 지고 나른다.

○石牆 — 田畠, 家屋, 墳墓等의 境界는 石垣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防風, 防高上에는 매우 有利한 것이며, 天然的으로 豊富한 돌을 島民들은 各方面에 利用한다.

○山王宮 — 病의 治療나, 防厄이나, 福을 빌기 爲하여 數日間 큰 대(돛대의 一種)를 세워 祈願한다.

○할망당 — 女子들은 每七日날 福을 빌기 爲하여 할망당에 祈祭를 한다.

○照里戲 — 陰曆八月十五日 男女가 모여 歌舞를 하며, 左右로 隊를 나눠 大索 兩端을 당겨 勝負를 決한다.

○燒酒多用 — 장마 때문에 病을 막기 爲하여 燒酒를 많이 쓰게 된 것인데 이것도 元의 遺風으로 본다. 오늘날

冠婚喪祭 및 一般的으로도 燒酒 消費量이 第一 많다. 多分히 經濟的 條件도 有인리라고 본다.

○ 糶幕 — 溫突아궁이는 반드시 부엌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엌 아닌 쪽에 더 많으며. 炊事와는 關係없이 불을 때는데. 가스락 (麥芒) 과 乾燥시킨 牛馬糞을 燃料로 쓰는데 火力이 매우 좋고 持久力이 있다.

○ 塹 — 濟州에는 盜賊과 乞人이 有기 때문에 大門이 必要가 有고 前庭 出入口에 「塹」 (길다란 木棒) 을 가로 걸쳐서 牛馬等의 侵入을 防止할 뿐이고, 누구나 塹이 걸쳐 있는 집에는 出入하지 않는다.

○ 養豚 — 집집마다 豚舍와 돼지우리가 有어 大便所와 連結이 되어 有으니 사람이 들어 가면 돼지가 豚舍에서 뛰어나와 人糞을 먹는다. 勿論 飼料를 別述로 많이 먹이지만 便所에서 구데기가 들끓는 일은 없다. 麥藁, 雜草等을 돼지우리에 넣어 주면 돼지 밭에 골고루 밟아서 數箇月後에는 좋은 堆肥가 되어 밭의 耕作할 때에 下肥로 使用한다. 實로 農家에선 一鳥三石格인 좋은 副業이다.

○ 콩나무 肥料 — 特異한 下肥法이다.

三月에 콩의 種子를 뿌려서 八月쯤 되면 콩과 잎사귀가 茂盛하게 된다. 이 時期를 보아 베어서 밭에 깔고 흙을 덮어 두었다가 十月에 밭리를 갈면 土質이 肥沃하여지며, 收穫이 三倍나 되고 爾後四,五年間은 繼續하여 農事가 잘 된다. 模範할 만한 農法이다.

○ 海藻肥料 — 風波가 甚하였던 後에는 數日間에 걸쳐 雜種海藻가 海邊에 더 밀려 온다. 海邊部落民들은 이 海藻를 부지런히 주어 모아 良質의 堆肥를 만든다.

「밭 밟기」 「海女」 「女子의 勤勞」 「牛馬 牧收」 등은 前項

에서 詳述하였기로 여기서는 省略하며, 餘他 些細한 風俗도 多少 있으나 이 亦是 省略한다.

C. 要約

閉鎖性 社會를 이루고 있던 濟州島는 그 어느 地方보다도 鄉土色이 濃厚한 民謡를 간직하고 있다. 民謡에 나타난 民俗을 大略 考察하기 爲하여 濟州島의 歷史的、地理的 環境을 살피고, 다음에 「오돌뜨기」를 비롯하여 海녀노래, 뱃노래, 漁夫노래, 따빛노래, 伐木歌, 踏田歌, 除草歌, 타작노래, 방아노래, 땃돌노래, 시집살이 노래, 팔자노래, 침노래, 과부노래 등을 通하여 볼 때 簡單히 말해서 貧寒한 濟州島의 生活環境속에서 勤勞와 儉約을 爲主로 하고 主業인 農事에 四時節 마다 勞働하는 一方 餘暇를 틈 타서는 女子는 海女作業에 養豚 養雞 等に, 男子는 漁業과 牛馬放牧에 從事하여 生活를 維持해 나감에 島民은 모두 어려서부터 勤儉하고 正直하다. 浪費와 奢侈를 볼 수 없는 것도 이 고장의 特徵 이리라. 따라서 一般的으로 衣、食、住 生活面이 매우 素朴하고 島民의 氣質은 南國的인 情緒속에서 溫厚하고 淳朴한 면도 엿볼 수 있다. 仔細히 보아 陸地와는 特異한 風俗과 習慣이 있으며 「傳說의 섬」이라고 불리울만큼, 많은 傳說도 간직하고 있다. 그中 高良夫三乙那의 傳說, 雪漫頭姑의 傳說, 金寧蛇窟의 傳說, 廣靜堂의 傳說, 徐市의 傳說 등이 有名하다. 兼하여 巫俗이 오늘 날에도 盛行되고 있는데 堂神, 七星, 山王, 火燈神 其他의 雜神을 爲하여 定期的 或은 隨時로 祈祭를 하

는 風俗이 있다.

其他 特異한 風俗의 몇 가지 例를 들어 보면
結婚後의 別居, 養兒法 (애기 구덕, 負兒法), 婦人의
엷은 머리, 허벅, 石牆, 山王굿, 할망당, 照里戲, 燒酒
多用, 골목, 정, 養豚法, 堆肥, 콩나무下肥, 踏田,
潛女, 牛馬放牧, 等 濟州 特有의 風俗 習慣을 볼 수 있다.

参考文献

1. 方鍾鉉., 濟州島의 方言, 朝鮮文化 叢說 1947
2. 張壽根., 韓國의 神話, 什是 成文閣 1961
3. ———, 濟州島女神考, 濟州文化 創刊号 1957. 6
4. 蔡聖麒., 濟州島民謠 (第一輯) 제주희망프린트, 1958
5. ———, ——— (第二輯) 중앙미술사 1958
6. ———, ——— (第三輯) 성문프린트사 1958
7.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實蹟 研究社 1932
8. 金榮敦., 濟州島方言의 音韻 概觀, 濟州文化 創刊号 1957. 6
9.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 社 1958
10.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 東方學志三輯 1957. 12
11. 宋錫夏., 韓國民俗考, 什是日新 社 1960

第四章 濟州民謠의 特質

地理的, 歷史的 影響을 받아 閉鎖性社會를 이루고 있는 關係로 陸地에 比하여 特異한 民俗을 지니고 있고, 그 民俗에서 湧어나온 豊富한 民謠를 가지고 있는 濟州島는 「民謠의 寶庫」라고 불리우고 있다. 같은 前述한 바이나, 그 民謠 속에는 鄉土的인 特質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제 內容과 形式의 두 가지 面에서 特質을 들추어 내어보고자 한다.

A. 內容上的 特質

濟州島에 있어서 代表的인 民謠의 大部分은 秦聖虎의 「濟州島民謠」一、二、三輯과 金永三의 「濟州民謠集」에 실려 있는 바, 이 것을 살살이 살펴 본 結果, 筆者는 濟州民謠의 內容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特質을 摘出하였다.

1. 婦謠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2. 婦謠의 大部分이 勞動謠다.
3. 바다를 背景삼은 노래가 頗 많다.
4. 鄉土的 多樣性을 지니고 있다.
5. 島民의 勤勞性, 素朴性이 顯著하다.
6. 比喻가 豊富하다.
7. 象徵語가 많다.
8. 濟州島方言 그대로의 表現이다.

첫째, 婦謠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것은 陸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婦謠가 많은 根本的

인 原因은 朱子學的 儒敎가 國家社會의 基盤이 되어 封建的인 思潮가 支配하게 되니 庶民 婦女層은 階級과 男尊女卑 思想에 억누름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本然의 思想 感情은 朱子學에 拘束받지 않는 곳에 其發露를 求하여 自然의 文學인 民謠에 그들의 悲哀를 呼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陸地나 濟州에 있어서 男謠보다 婦謠가 많은 要因의 하나이며, 濟州島의 境遇는 女子의 勞動分野가 많다는데 그 原因이 있다 하겠다.

秦聖虎氏의 「濟州島民謠」一、二、三輯에 실린 總846首中 婦謠는 590首, 男謠는 單4首 男女混謠 252首로서 婦謠의 多數를 立證하고 있다. (Table II 参照)

둘째, 婦謠의 大部分이 勞動謠다.

濟州島 女性의 勤勞性은 全國적으로 垂範이 될만큼 놀라운 것이며, 婦謠中 맷돌노래, 망아노래,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배틀노래 등은 勞動謠이지만 其他의 生活謠도 흔히 勞動할 때 불리우는 수가 많다.

3. 바다를 背景으로 삼은 노래가 많다.

이는 濟州島가 섬나라 라는 地理的 條件으로 인하여 海女와 漁夫들의 感情에서 나오는 노래의 自然的 背景이 되는 것이다.

若干 例를 들어 보면

산도 높안	못넘엄서라
물도 잔언	못넘엄서라
산을 넘곡	물 넘으민
어멍 신덜	가리어마는
아니 가난	그리명산다

나주 영산	회양술에
제주 알산	붉은꽃에

처 바당이 북쪽의 생선
빙 든 부모 소심한 더라

(秦:民①:P.24)

물도 사면 여물이 나고
남도 사면 물이 난다
물사도록 내아질말가

(秦:民①:P.37)

물아래도 삼년이러라
물위에도 삼년이러라
년삼년을 살고보니
광혼착만 남아서라

(秦:民①:P.38)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요 바당이 요물 속은

(秦:民①:P.140)

이 바당이 은과금이

(秦:民①:P.146)

큰물가에 아진 새는

(秦:民①:P.153)

들물나건 동의바당
설물나건 서의바당
바당에도 머들이짓나

(秦:民②:P.56)

물속에 보배는 진주가 보배

(秦:民②:P.56)

에야 뒤야 요바당아

맹치와당 쌀빚름불라

갈치와당 갈빚름불라

(秦:民②:P.64)

처바당이 무낭정직이

(秦:民②:P.69f)

바당엘카면은 해녀의노래요

(秦:民②:P.95)

영후바당 물뭍은속에

영해바당 갯읍는내몸

섬의철이 물어도근심

바당철이 물어도근심

(秦:民③:P.188)

청수호고 흑수호바당

(秦:民③:P.257f)

그 表現이 매우 多彩롭다. 이 밖에도 많지만 省略한다.

4. 鄉土的 多樣性を 지니고 있다.

鄉土的인 多樣성이 豊富함은 前章에서 말한 바와 같이 特
異한 風俗이 풍기는 鄉土色도 있지만 이는 再言을 避하고
民謡 속에 불리운 絶景과 風致를 紹介하면

여기는 제주도 옛날엔 캄나국
삼신산 이곳에 명승지 많도다
사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언덕 저언덕 영주산 명승지

(秦:民③ P.216)

일출봉 성산에 햇님이 뜨고요
사라봉 등뒤엔 햇님이 졌다네
사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언덕 저언덕 영주산 명승지

(全上)

방선문 꽃들엔 선녀가 놀고요
마을돌 풀림엔 솟도가 논다네
사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언덕 저언덕 영주산 명승지

(秦:民③ P.217)

산지포 돛대엔 갈매기 놀고요
고수에 물들은 스랑을 잔다네
사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언덕 저언덕 영주산 명승지

(秦:民③: P.218)

정방수 폭포는 장단을 치고요
영실에 가암은 찬비를 부르네
사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 언덕 저 언덕 영 주산 명 승 지

(秦:民③:P.218)

영 천 문 문 앞 이

영 이 방 걸 음 을 걸 어 라

아 가 조 흥 아 장 거 려

신 뵙 스 흘 리 레 나 간 다

지 와 자 좋 고 계 명 산 이 로 구 나

(秦:民③:P.210)

여 기 는 제 주 도 여 자 의 나 라

감 제 술 혼 잔 에 스 랑 을 맺 어

좁 북 따 는 좁 녀 들 이 부 르 는 소 리

좁 녀 야 왜 우 느 냐 내 여 기 왔 노 라

(秦:民②:P.88)

제 주 야 한 라 산 고 사 리 맛 도 좋 고 좋 고

고 랑 부 삼 성 야 나 오 신 곳 도 좋 고 좋 고

이 야 흥 이 야 흥 그 럼 고 말 고 요

곰 기 도 영 곰 네 좋 기 도 영 좋 네

(秦:民②:P.94)

한 라 산 허 리 에 시 로 미 익 은 술 만 술

새 귀 포 해 녀 는 바 당 에 든 술 만 술

동 기 대 당 실 동 기 대 당 실

너 도 당 실 원 자 머 리 로

달 도 밝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가 나

(秦:民②:P.96)

천 제 연 폭 포 는 흐 르 고 낙 리 는 물 이 요

새 섬 이 앞 으 로 연 세 감 돌 아 간 다

동 기 대 당 실 동 기 대 당 실

너 도 당 실 원 자 머 리 로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가나

다섯째, 島民의 勤勞性, 素朴性이 顯著하다.

이는 元來 肥沃하지 못한 農土에 그나마 人口比例로 봐서 耕地가 狹小하므로, 溫暖한 氣候의 惠澤을 얻어, 二毛作을 營爲하며 海業, 畜産等 副業도 熱心히 한다.

따라서 島民은 男女老少없이 매우 勤勉하다. 貧寒한 삶이기에 生活은 衣, 食, 住 共に 素朴하고 忍耐力과 艱苦心이 強하여, 뛰어난 富者도 없지만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도 하거나 거지가 되는 者도 없다. 民謡에도 이 勤勞性과 素朴性이 많이 보인다.

여섯째, 比喻가 豊富하다.

對句的인 比喻로 새 要點을 一層 強調한 句節을 많이 볼 수 있다.

가마귀도 어머나 혼다
생이도 어머나 혼다
우리성젠 무신필깃임
어머나 말도 몰라니 혼다

(秦: 民①: P.5)

早失母親하고 외로운 兄弟가 새나 가마귀도 어미를 부르니, 이것을 보고 부른 隱喻적인 對句節이다.

강남가도 석돌에 돈다
일뎨가도 석돌에 돈다
황천질은 조반날 질이여
가난을줄 모르는구나

(秦: 民①: P.9)

하루 아침 조반 때에 죽어간 男便이 돌아오지 않음을 歎하여 江南, 日本에 距離를 比較하여 잘 表現했다.

그랑비도 나부모 뉘이여.

흙은비도 나 부모 뉘이여
 문기산산 지드림서라
 으신부모 발어름소리
 귀에쟁쟁 열리엄서라

(秦:民①:P.17)

돌아가신 父母님을 追慕하면서 내리는 비를 父母님
 靈魂으로 생각하고 그 생전의 발자국 소리를 聯想한다.

누만년 정배죄인도
 풀러갈날 이서라마는
 황천길은 조반질이라도
 가난다사 올줄몰라라

(金:民:P.139)

黃泉 길은 하루 아침 짧은 길인데도, 왜 속리 돌아오지
 못하는고, 오랜 동안 먼 곳에 定配되었던 罪人也 풀려서
 돌아오는데, 멋있는 比較表現이다.

밤중 뉘든 해해리 운다
 새벽 뉘든 경경이 운다
 어느 경에 내아니올리

(秦:民①:P.41)

靑孀이 밤을 눈물로 지새면서 딸의 울음소리를 모두
 듣고 哀愁를 더욱 느낀다.

밥먹어도 배아니불곡
 죽먹어도 배아니분다
 공흔말이 죽이멍밥가
 들엄시난 배불어서라

(秦:民①:P.42)

공흔 말 (無辜한 말) 듣는 일은 밥이나 죽을 먹는 것
 보다 배가 부르고 消化가 잘 되지 않는 것임을 表現

한 것이다.

새노는 딴	짓이나 둔다
취노는 딴	맷이나 둔다
곤즈아흙	나놀아간 딴
미싱결랑	ㅁ뭇이더냐

새나 취가 놀다 간 곳에는 痕跡이 남지만 君子 나흙
이 놀다 간 곳에는 아무런 證據도 남아 있지 않다.

씨어멍은	갯늬물 났이여
날고보난	무지리 더라
씨아방은	장푼이 났이여
날고보난	꺼거걱 허여라
소나인	물꾸럭 났이여
날고보난	허우여 안나

(秦: 民①: P. 57)

앞산에서도 죽썩단 솟은
산뒤에 꺾도 죽을 썩고
본디 전상 꽃어랜 팔제
대정을가나 모판을가나
그만 간장 색이멍산다
본디 팔제 좇렘해시민
아진들사 내몬살리야

(秦: 民①: P. 61)

어떤 새는	밤에도 울고
어떤 새는	낮에도 울고
그새저새	날랴은새여
밤낮몰라	어멍아운다

(秦: 民①: P. 66)

어멍살안 옷반반임곡

아방 살안 신 반 반 신곡
 어멍 아방 다살은 애긴
 옷도 반반 신도 반반
 나어멍이 야디나 간고
 얹고 지고 나어멍 시민
 놀의어멍 어멍 아 놀라

(秦: 民①: P. 70)

저산으로 일어난 불은
 산작이나 끼와나 른다
 바당으로 일어난 절은
 여울로나 줌지라 진다
 내 가슴에 일어난 불은
 어느 누가 끼와나 주리

(秦: 民①: P. 87)

以上 五篇을 살펴 보면 모두 一律로 比喻를 먼저 들고
 다음에 要旨을 对句的으로 들었다.

- ① 씨어멍과 갓느물, 씨아방과 장늬, 소나이(男便)와 물
 꾸럭(文興)
- ② 팔자 꽃은 改嫁女性과 죽 쑤던 솥.
- ③ 밤에 우는 새, 낮에 우는 새와 자기의 울음의 比較.
- ④ 얹은 어머니라도 남의 어머니보다 나으나 안 계시니 그리
 위하는 表現이다.
- ⑤ 산 불과 풍파에 비하는 내 가슴속의 불길.

- 다음 몇篇만 더 例를 들면

저산천의 푸십새는
 면에면방 돌아오건만
 이 내 몸은 혼번가니
 다시 오기 만물러라

(秦:民①:P.139)

죽어서 영이별은
 나라의 대동이며
 살아서 영이별은
 생초목에 불이난다

(秦:民①:P.96)

지서명광 오름엿돌은
 둥글당도 살을매난다
 놀의첩광 소낭기브름
 소린나도 살을매엇다

(秦:民①:P.98)

초심들은 반돌이라도
 조선국을 지울리더라
 우리몸은 혼몸이카토
 부모간곳 모르는구나

(秦:民①:P.105)

일곱 재, 象徵語가 많다.

濟州民謠에는 擬聲語와 擬態語가 많다. 이 두가지 말을 합하여 *Symbolic word* 라고 할 수 있으니, 李熙昇 博士는

「*Symbolic word* 는 事物의 動作이나 狀態나 또 는 그 音響을 될 수 있는대로 그대로 模倣하여 表現 하려는 象徵法을 起源으로 하여 생긴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濟州民謠를 整理하던 次 *Symbolic word* 의 驅使가 많음을 보았다. 其中에서

1. 擬聲語는 動物의 우는 소리나, 自然界의 音響을 模倣하여 表現한 것이니,

- 험백 눈은 펄펄 펄펄
- 스랑 눈은 스랑 스랑
- 설 곳은 덩 덩
- 서리 서리 누리고서
- 스르릉 스르릉 잘 먹어 간다
- 비랑 오진 산산이 오라
- 주르르 활활 잘도 나간다
- 송 송 들랑귀

2. 擬態語는 事物의 動作, 或은 狀態를 그대로 模倣하여 表現한 것이니,

- 이 내 몸은 고랑 고랑
- 담 고양은 비룽 비룽
- 등도 뱀작 모도 뱀작
- 똥꼬망은 찢작
- 철철이 일러라 보저
- 고비 고비 을아라 마는
- 푹싹 푹싹 산천은 점고

이와 같은 *Symbolic word* 는 더욱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니, 數三 例示 하면

- 울릉 흘릉
- 조종 조종
- 시르릉
- 화르릉
- 어야음 어야음
- 오랑 오랑
- 아랑 아랑
- 뭉디 뭉디

- 반질 반질
- 종 종
- 아중 아중
- 실 실

여덟째, 濟州島 方言 그대로의 表現이다.

이것은 그 地方 庶民 婦女層에서 日常 使用하고 있는 말 그대로를 表現한 것이므로 곧 方言 그대로의 表現이라고 하겠다. 陸地에서는 서울을 中心으로 交通이 頻繁하므로, 言語의 交流이 잘 되어 南北 數千里를 隔한 地方에서도 言語의 疎通을 볼 수 없지마는 濟州島는 特殊地域이기 때문 純純한 方言은 解得키 困難한 處이 많다.

濟州島 方言에 對한 研究는 未開拓 分野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 濟州民謡를 中心으로 語學的인 研究가 必要함을 切實히 느끼는 바이다.

여기 斷片的이나마 몇 가지 例를 들면

- | | |
|---------|---------|
| ○ 두리는 | 쫓는 (追) |
| ○ 생이 | 새 (鳥) |
| ○ 지서명 | 賢淑夫人 |
| ○ 시리야마는 | 있으리오마는 |
| ○ 양지 | 얼굴 |
| ○ 켜당 | 친척 |
| ○ 소리엥 | 소리라고 |
| ○ ㄴ뭇 | 흔적 |
| ○ 물꾸럭 | 문어 (文魚) |
| ○ 두랑가라 | 데리고 가라 |
| ○ 팍 | 판 (板) |
| ○ 영 | 이렇게 |
| ○ 정 | 저렇게 |

○ 심방	무당 (巫)
○ 다심씨명	結髮母
○ 유우러분	시들어버린
○ 바눔	바늘
○ 미네기	미나리
○ 밀랑패랭이	밀짚모자
○ 마래	맷돌
○ 아시	동생
○ 종애	다리 (下肢)
○ 뽕생이	망아지
○ 도세기	돼지
○ 둥세기	달걀
○ 여망지다	영리하다
○ 하르방	할아버지
○ 무사	왜 (何故)
○ 덕사리	머슴
○ 비바리	처녀

예를 들자면 無限이나 語學的인 問題이므로 이程度로 省略한다.

B. 形式上的 特質

前述한 바와 같이 濟州民謠는 内容에 獨特한 性質을 가지고 있거니와, 또한 形式上에도 매우 特異한 點이 있다. 即 우리나라 民謠를 地方別로 그 形式을 살펴 보면 四四調가 多數를 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四四調가 韓國人의 呼吸에 맞고 自然스러운 形式이라 한다.

그러나 이제 濟州民謠를 살펴보면 四四調가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으며, 其外에도 陸地에 比하여 特異한 形式을 볼 수 있다.

周玉山은 「朝鮮民謠概論」中 「朝鮮民謠의 形式」에서 四四調가 基本形이고, 三四調, 三五調, 五四調等を 列擧하였으며,

高晶玉은 「現存民謠의 形式은 다음 六種類로 볼 수 있다. 라고 前提하고, 四四調가 典型的이고 五五調, 三三調, 六四調, 四五調, 不整調로 나누고 있는데 四五調는 濟州民謠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濟州民謠를 가장 많이 실은 秦聖虎의 「濟州島民謠」의 一, 二, 三輯에 있는 民謠를 形式上으로 全部 分類해 보았다. 그 結果를 一覽해 보면 9.v Table III.

四五調가 全篇數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陸地에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四四調는 全篇의 六分之一을 若干 넘는 程度이고 四五調의 三分之一이 못되는 形便이나 濟州島民의 呼吸에는 四五調가 가장 適應한 것이라거나 할까,

濟州島民謠에 있어서는 四五調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음이 그 形式上 特質의 하나라고 하겠다. Table III에 나타난 四五調 447篇은 整然한 것이며, 一字라도 增減이 있는 것은 모두 不整調에 編入시켰기에 若干 破格된 것까지 包含시킨다면 其數 能히 全篇數의 三分之二에 達하리라.

周玉山과 高晶玉이가 分類한 우리 나라 民謠의 五五調 三三調가 若干 볼 수 있을 뿐이고, 三四調, 三五調, 五四調는 各々 一篇씩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陸地와 다른 形式上 特質의 하나라고 하겠다.

反面에 陸地에서 보기 드문 六五調, 六四調, 六六調를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또한 形式上 特質의 하나라고 하겠다.

四五言 三聯으로 된 것을 살펴 보겠

가라 오라 ㄷ리는 집이
도람 들멍 삼년을 사난
가랜 말이 저 잊어서라

(秦:民①: P.3)

가지 나다 초나다 말라
상간 고개 서리산 고개
노닐 당도 지서 면 된 다

(秦:民①: P.8)

강답논에 초나룩 갈안
하늘님이 비아니 주난
불리들이 애물람서라

(秦:民①: P.12)

나가는디 어두외러라
먼증밖에 신벗어내며
신고가민 매기로 구나

(秦:民①: P.17)

날랑죽전 꽃이나되라
늘랑죽전 나비나되라
꽃광나빈 흥글르논다

(秦:民①: P.25)

四五言 四聯으로 된 것.

남신신영 돌 ㄷ리 발문
왈강달강 소리나난다
요임걸영 요인심삼은
남신더욱 소리가난다

(秦:民①: P.27)

돌아돌아 태보름돌아

높지들령	청명케뜨라
저속궁에	나부모깃저
진디보명	여울로오게

(秦:民①:P.33)

머리삼갑	등에논적인
부모동생	잇잇건만은
삼갑머릴	육갑에달난
부모동생	허세일러라

(秦:民①:P.35)

은기놋길	박으로쓴들
놈의첩을	사름이들라
좁쌀만이	사를매시민
놈의집을	사름이살라

(秦:民①:P.80)

전처소박	양첩혼놈아
불유월낭	죽을빙들전
문을더깁	정걸어불라
매인외발	도놀듯하게

(秦:民①:P.93)

四五調 五聯으로 된 것.

씨녀종스	난살쟁근난
씩쿨지영	물레레들라
새뭇지영	불레레들라
씨어머님	영문일러라
넌들살앙	무심걸러라

(秦:民②:P.115)

썩물다섯	방광에죽엄
가심석곡	술석은물은

솟아올랑	눈으로 난다
눈물소에	배세와눔앙
한숨으로	닷갱기더라

(秦:民②:P.34)

가다근에	남에걸리라
오다근에	남에걸리라
정망하고	슬퍼나지라
뉘게발은	덕이영호전
쟁게발은	덕으로알라

(秦:民②:P.2)

모살방풍	신집치담앙
으신부모	생각을호니
목도담전	돈먹엄씨라
어는제랑	부모가오민
이집치도	먹어나볼고

(秦:民①:P.37)

바당골이	발이랑갈곡
구름골이	종지를세왕
셋별골이	노복을앗영
이제만이	부모가오민
제긴아니	반가울말가

(秦:民①:P.46)

四五調 六聯으로 된 것.

스랑스랑	남스랑날에
남괴칼에	손이랑베영
설룬어멍	날베일적이
어느바당	매떡국먹언
보름불적	절알적마다

구울리멍 못 살아서니
(秦:民③:P.50)

전 이 전 체	아 닌 우 제 사
요 일 혁 명	요 고 생 후 라
한 강 바 닷	물 아 래 드 난
태 와 돌 집	엄 크 러 짚 엄
푸 납 새 를	뜨 드 레 들 멍
훈 종 일 을	요 생 활 훈 다

벗 의 집 에	벗 보 래 가 난
벗 은 웃 고	지 집 만 석 라
벗 의 지 집	상 보 는 상 은
중 반 에 도	산 맥 이 러 라
삼 당 쫓 이	임 어 온 머 리
썩 은 비 단	모 질 미 러 라

(秦:民③:P.178)

아 들 아 들	홀 어 멍 아 들
아 님 직 도	서 책 을 안 안
중 이 방 곶	서 뿔 을 들 언
삼 천 장 의	배 릿 돌 굴 안
팔 만 국 을	저 을 려 뵈 멍
나 랫 령 을	막 으 려 간 다

(秦:民③:P.192)

스 랑 에 도	아 니 온 님 이
빙 중 후 다	오 리 야 흥 영
벗 의 절 중	동 갑 네 집 이
이 내 밤 에	놀 래 나 간 다
동 지 섰 돌	지 나 진 밤 이

삼은삼미 발가뭇이여

(秦:民③: P.242)

四五言調 七聯, 八聯으로 趯然 한 것도 많으나, 四五言調의 例는 이만 들고,

四四言 몇 篇을 적어 보면

다심씨멍 아픈눈에
미상것이 약알러니
영킷물이 약알러라

(秦:民③: P.40)

대점선앙 어진선앙
정이선앙 어미선앙
성산선앙 도령선앙

(秦:民③: P.71)

공아공아 수만공아
훈애기에 망진공아
두애기에 접진공아

(秦:民②: P.149)

얼른가라 재게가라
빙든서방 약을주나
우리애기 죽을주나

四聯으로 된 것.

생호목에 이는불은
좁진비도 끄련마는
요내속에 이는불은
큰비라도 못끄리라

북망산천 훑아가서
무덤안고 통곡하니

무정 하고 냉훈 님은
말훈 꼭질 왜 못하러

빙빙돌라 통통지라
꺾래글라 망애지라
꺾래글라 빙빙돌라
망애지라 통통지라

랑대기는 칠성판아
잉영사는 맹정포야
몬홀것이 요일이여
모진광풍 불지말라

(秦:民③:P.88)

일즈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칠하다
꽃이피면 오마더니
알피어도 막연하다

(秦:民①:P.162)

산뽕따는 비발애야
산뽕따서 무얼하니
양좁하야 명주짜서
북모곰양 흠웁니다

(秦:民①:P.158)

도三調는 그리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적어 보면

산츱지 물츱진
총독부 츱진데
정돈님 츱지는
요내몸 츱지라

산봉이	났구나
시련봉	났구나
늑의집	귀동조
시련봉	났구나

오르멍	느리멍
흔지침	소리는
열너가	소보도
내몬홀	짓이라

청치매	말에다
청주팽	차놓고
님오실	시간만
지다려	았았네

사름이	중하냐
금전이	중하냐
두가질	놓고서
생각을	하여라

이 트트툼의 겹이라고 볼 수 있는 六六툼가
있으니,

산에를가면은	목동의 노래요
바당엘가면은	해녀의 노래요
이야흥이야흥	그럼요 말고요
قم기도 영قم네	종기도 영종네

한라산상상봉	높고도 높은봉
--------	---------

이야흥 백녹 담	이야흥 이로나
이야흥 이아흥	그럼고 말고요
곰기도 영곰네	종기도 영종네

여기는 제주도	옛날엔 람라국
삼신산 이곳에	명승지 많도다
스시절 명승지	이언덕 저언덕
이언덕 저언덕	영주산 명승지

三沿地方 (江西, 龍岡, 咸從)에서 불러우는 「기나리」에 三三調가 重複된 六六調가 있으며, 또 俗謡로도 民謡로도 볼 수 있는 興打승도 또한 그렇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버들은
제멋에겨워서	흐느러 져고나

五五調는 그 數가 적다.

고장 정리에	질 배인놈아
가다 오다가	목부러지라
목 졸라지영	내원정말앙
생대로 신대	지영궁가라

봉지가진다	봉지가진다
산천초목에	봉지가진다
봄철이 남에	봉지가진다
봉지가진다	봉지가진다
산천초목에	봉지가진다

고양은 점점	타양이되고
타양은 점점	고양이되고
팔제전심이	꽃어련물은

산짓물에도

궁근팡 춘지

(秦:民②: P.148)

팍새가 왔네

팍새가 왔네

구실을 물고

팍새가 왔네

솟놈문것은

암놈이 물고

암놈문것은

솟놈이 물고

솟놈 암놈이

어르논 소리

뤼집과부가

환장이 났네

六五調。

천금을 주어도

몬사는 세월

만금을 주어도

몬사는 세월

일푼 냥 닷돈에

다 풀렸더라

둥그린 뉘새긴

빙애기 되곡

손에 쥔 뉘새긴

색영고리곡

둥그린 사름은

쓸매가나곡

모시는 사름은

중기가 된다

우리야 연애는

두렁백연애

부름만 불면은

실망이난다

우리야 연애는

솔방울 연애

구시월 되며는

다 떨어진다

널끓은 잡놈에

속 두지말앙

왜쥬쓸송펜에

전속만두라

무거리피밥에

해열이국에

먹다남아개룬

놈의 정이며

물속에 보배는	진주가 보배
산천에 보배는	나무가 보배
인간에 보배는	죽식이 보배

四三調

남문들깎	남신꼴
진신들깎	칠성꼴
별이송송	객색꼴

야실야실	춤거든
요내품에	춤겨라
덧을것이	없거든
요내치매	덧어라
배일것이	없거든
요내홀목	베여라

울룽출룽	조소귀
울룽출룽	청감귀

외발돌은	돌체귀
두발돌은	가냐귀
시발돌은	통누귀
니발돌은	당나귀

(秦:民③:P.301)

던데던데	던데야
마니마니	마니야
좀매좀매	좀매야

(秦:民③:P.103)

以上「濟州民謠」속에서 여러가지 調로 構成된 例를 들었거니와, 其中 形式上的 特色은 첫째, 四五調가 殆半을 넘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六五調, 四三調, 六六調等 陸地에 드문 形式을 가지고 있다. 셋째, 陸地에서 絶對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四四調가 濟州島에는 그 比率이 적다.

C. 要 約

地理的, 歷史的 影響을 받아 閉鎖的인 社會를 이루고 있던 關係로 陸地에 比하여 特異한 民俗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에 影響되어 民謠 亦是 特異한 面을 그 内容이나 形式에 있어서 볼 수 있으니,

内容面에서는

1. 婦謠가 絶對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2. 婦謠의 大部分이 勞動謠이며,
3. 바다를 背景삼은 노래가 펴 많고,
4. 鄉土的 多樣性を 지니고 있으며,
5. 島民의 勤勞性, 素朴性이 顯著하며,
6. 比喻가 豊富하고,
7. 象徵語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8. 濟州島方言 그대로의 表現等を 들 수 있다.

形式面에서는

1. 四五調가 濟州民謠의 殆半을 넘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2. 六五調, 四三調, 六六調等 陸地에서 보기 드문 形

式을 가지고 있으며,

3. 陸地에서 絶对 多数를 차지하고 있는 四四言調가 濟州 民謠에서는 그 比率이 적다.

参 考 文 献

1. 崔鶴璇., 濟州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 第4卷第12号, 1958. 12
2. 秦聖鹿其., 濟州島民謠, 第一輯 제주희망프린트사 1958. 3
3. ———., ——— 第二輯 제주중앙미술사 1958. 7
4. ———., ——— 第三輯 제주성문프린트사 1958. 9
5. 周王山., 朝鮮民謠概論, 東洋프린트出版社 1948.
6. 金斗奉., 濟州實記, 濟州實踐硏究社 1954.
7. 金榮敦., 제주도방언의 어미 활용, (1)(2)(3) { 1956. 10
한글通卷 119, 121, 122号 { 1957. 2
1957. 10
8. ———., 濟州方言의 音韻概觀, 濟州文化創刊号 1957. 6
9. 金永三., 濟州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10. 金完鎮., 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辭借用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第18号 1957. 12
11. 李熙昇.,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1955. 8
12.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 東方學志 第三輯 1957. 12

第五章 陸地民謡와의 比較

濟州島 民謡의 特質을 前章에서 말하였거니와, 이제 이 民謡를 陸地 民謡와 比較해 볼 때 그 類似點과 相異點이 各々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로 같은 뜻과 서로 다른 뜻을 比較해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民謡 (濟州島와 陸地)의 同異의 要因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A. 近似點에 對하여

우리 나라의 全域에 分布되어 있는 數 많은 民謡를 整理하여 圖表를 만든 高晶玉의 韓國 民謡 分類一覽表를 便宜上 參考로 하여 比較 對照하면서 濟州 民謡와의 近似點을 찾아 보았다. Table IV 參照.

勞動 謠에 있어서의 타작 노래, 나무꾼 노래, 밭 노래, 방아 찼기 노래, 作業 謠에 있어서의 베틀 노래, 맷돌 노래, 밭 매는 노래, 女 歡歌에 있어서의 八字 노래, 不滿歌, 靑孀歌, 妾 노래, 烈女歌에서의 貞烈歌, 不貞歌, 母女 愛戀歌에서의 자장가, 誡女歌, 戀母歌 등이 相似하고, 이 밖의 시집살이 노래, 生活 謠, 近代 謠, 醉樂歌, 兩班 노래, 輓歌, 情歌, 聲戲 謠, 諧謔 謠, 怨情 노래, 相思 노래, 春遊歌, 感傷 謠, 큰 애기 돌이, 打令 등이 濟州 民謡에도 있으니, 이제 노래의 內容을 比較해 보면,
타작 노래

여개를 떼려라 예모

저개를 떼려라 에오
 주인네 이망을 에오
 떼려라 에오 (咸陽)

(高:民:P.105)

어야홍아 어야도홍아
 요곡속을 장만하영
 전배독선 하실것가
 요 늙은이 어뎡행살젠
 걱정말삼 걱정도말앙
 바당에강 미역즈물앙
 발사곡논상 버실멍살주
 어야홍아 어야도홍아 (제주)

(秦:民②:P.200)

나무꾼 노래

에헤야 에헤야
 반풍에 솟은 고산준령을
 거침없이 넘어가자 (尙絳)

(高:民:P.133)

요산중에 놀단남가
 오늘날은 지와잔다
 섰은그는 산중나무
 오늘중에 지와잔다 (제주)

(金:民:P.82)

뱃노래

호의호식 몬해보고
 수중에서 생장하야
 수중으로 댕기기는
 육지같이 댕기면서

해중 풍파 다 겪다가
 앓차 실수 하게 되면
 고기 밥을 면 할 소나 (南海)
 (高: 民: P. 136)

이여 싸
 이여도 허라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산 띄는 건
 웅매로다
 여 띄는 건
 배로구나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제주)
 (金: 民: P. 28)

방아 짚기 노래
 미끌미끌 기장방애
 원수 끝에 보리방애
 짚기 좋은 나락방애
 등애 나무 물방애
 사박사박 육미방애
 짜글짜글 녹살방애
 오동추야 밝은달애
 황미백미 짚든방애 (漆谷)
 (高: 民: P. 41)

가시 오름 강당장 집이
 시끌방애 새클럽서라
 전신꽃인 이내몸가난

오섯골로 새근참서라 (제주)

(秦:民①:P.109f)

歌詞와 形式은 다를지언정 勞動에 對한 興趣와 勞
苦를 참아 이겨내는 그 노래들의 要旨은 相似한 點
이 많다.

배틀노래

천상에 직녀야
옥정 황제 다님으로
일생이 한가하여
할일이 바이없다

(統營)

(高:民:P.343)

오늘날은 해심심하다
내일날은 돌심심하다
배틀에 노래나 불령근가자
하늘에가 배틀을 걸영
구름에가 잉애를 걸영
잉애자리는 삼형제여
소나무장판에 안질게하니
비바리궁둥이 다들아진다

(제주)

(秦:民①:P.173f)

女子의 일가운데 가장 女子다운 것은 배자기이다.
그 노래도 大端히 精巧하며 全國에 遍在하여 있으나,
漸次 그 그림자를 감취가고 있다.

맷돌노래

둘러둘러 둘러주세
화수봉산 대추같은 밑을

천석갈면	만석되고
이말갈아	누룩디저
술을하면	수만석이 퇴가나네 (鳳山)
	(高:民:P.352)

이연이연	이여도마래
마래마래에	요마래야어---
누개님이	놀든마래
가니마로	자녀가놀든
마래로구나	
이연이여	이여도마래
요마래야	지남석마래야 (제주)
	(金:民:P.62f)

발매기노래

요내발을	어서매고
임오발플	마즈매세
저전내라	황새봉에
청실홍실	군디매아
임강나강	얼려디어
떨어질가	염너로다
-----	(咸陽)

(高:民:P.354)

어긴여랑	상사대야
사디불령	요점질매게
족은목에	번개치듯
넙은목에	배락치듯
줄개끝에	불이나듯
검질짓고	플늦인발이
고분새로	여이멍가게 (제주)

(秦:民①: P.166f)

배를노래, 맏돌노래, 밭매기노래는 作業謠中에서도 代表되는 노래다.

자장가

뒷집개도	잘도 잔다
앞집개도	잘도 잔다
오동나무	가지우에
붕황새의	잠일런가
수명장수	할잠자고
만석거부	될잠자자

(咸陽)

(高:民: P.375)

자랑 자랑	왕이 자랑
구리아기	착훈애기
금을준들	너를 주랴
은을준들	너를 주랴
나라에선	충성둥이
부모에게	효성둥이
일가방상	화목둥이
동네에선	인심둥이
유기제물	지운둥이
남전북답	지운둥이
금저둥이	은저둥이
옥저둥이	진주둥이
천지전곤	일천둥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제주)

(秦:民①: P.179f)

어머니의 사랑은 자장가에서 始作된다. 「자장」을 「慈長」이라고 漢書하는 분도 있으나, 亦是 「자다」가 語源일 것

이다. 「자장」은 「자자」가 자리를 잡고 가라앉은 形態거나
愛語化한 것이리라.

言我女歌

딸아 딸아	연지 딸아
고이고	키우가주
남우집에	가거들랑
일가침척	오시그든
말에말씀	조심하고
지사영부	들거들랑
미돌쿨	조심하고
꿈우닭을	잡그들랑
잔머리를	조심하고
시아바시	상덜노면
처매꼬리	조심하고
도리도리	수박랑깨
밥담기를	조심하고
중우벗은	시동삼에
말에말삼	조심해라

(蔡卅)

(高:民:P.377f)

을고카민	놈이나 못나
대로한질	노래로예라
한라영산	내집이되민
부름놀랄	다불령가저

(제주)

(秦:民①:P.71)

出嫁하는 女息에게 주는 어머니의 教訓歌다. 媳家
에서의 日常生活의 禮法과 注意할 處等を 訓誡한
것이다.

戀母歌

엄마 하고	따라가이	
끝은 길고	산은 높고	
날마다	가는 엄마	
내들사	어찌하노	
그말하고	돌아서니	
옥과같은	내귀대기	
월칭같은	눈물이	
월영당못	비오듯하네	(義城)

(高:民:P.389)

죽은 어머니	내보고 싶은	
물은 무덤	헤이언 보난	
삼독 돌은	베게를 베고	
독독 돌은	이불 덮건	
자시는게	잠이시더라	(제주)

(秦:民②:P.1085)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시집가선 親庭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들로 나눌 수 있다. 우리 民謡에는 특히 母女間의 愛情과 戀慕의 노래가 많고 그 노래들은 듣는 사람의 心琴을 울린다.

女歎歌

女歎歌의 代表的인 것은 勿論「시집살이 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女子로 태어난 八字歎息, 男便에 對한 不滿, 靑孀歎, 妾노래의 悲哀들을 들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던가
시집살이	품데마는
어려운것	많도많데

조꼬마한	도리 판에	
수제 놓기	어렵 더라	
동골 동골	수박 식기	
밥람 기도	어렵 더라	
중우 벗은	시아 제비	
말하 기도	어렵 더라	(咸陽)

(高:民:P2945)

성님 성님	스 른 성님	
씨덕 핀당	방 속편말 맙서	
돌아 사난	잠을 공논 험디다	(제주)

(秦:民③:P112)

自身の 生活에 独立性이 없고 모든 것이 「안해」 「며누리」 「어머니」로서의 生活과 不可不離의 關係에 있었던 만치 婦女의 生活의 核心은 시집살이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집살이 노래」야 말로 婦孺의 中心이며, 우리 民謡의 精華라 할 것이다.

팔자노래

낙실 낙실	벼루 끝에
무심 하 다	쳐오 략아
앞에 가는	동생 두교
뒤에 가는	쳐 자 잡네
분 길 같은	요 내 몸이
잉 어 밥이	될 라는지
삼 단 같은	요 내 머리
돌 살에 다	헤 갈 리네
나 도 죽 어	환 생 하여
군 자 부 터	생 길 라 네
얼 으면	첩 이 요

남으면 자식이요 (卷四)

(高:民:P.4024)

형난플로	나도 가고	
형은 좋고	나뚝어라	
꽃은 전심	플리단보난	
원천강의	팔자로구나	
저기가는	심방과정시아	
이내사주	플리어도라	
원천강의	팔자연후전	
우여지도	마라근가라	(제주)

(金:民:P.1444)

불만가 (不滿歌)

삼각산에	비운동만동	
조그만 신라품에	잠잔동만동	(三沿地方)

서방이 커서	성인이 되면	
잔솔은 굵어	마루가 되오	(술노)

(高:民:P.404)

질프 넓은	물속은 알아도	
안고 도는	소년속 모른다	(제주)

(秦:民②:P.72)

죽일 놈아	잡을 놈아	
물 잃는	강산에	
배 띄워 놓고	낙노후니	
하늘 밖에	더 말소나	(제주)

(秦:民②:P.71)

年少한 男便마의 早婚은 生理的 悲劇을 낳고 그나마도
참고 견뎌 내듯 해도 몇해가 지나면 男便은 惡毒한 蟲

놀이에 미친다.

靑孀歌

은령 나무	형제 목도	
둘이 서로	마주서고	
앞집 황제	뒷집 암닭	
둘이 서로	작아 지고	
집신한 짝	미들한 짝	
둘이 서로	작아 지네	(義城)

(高:民:P.409)

낙 낙 장 송	느러진 가지에	
홀로 앉아	우너는 새아	
날만 보면	시시로 울어	
우리님 죽은	영혼인가 혼다	(제주)

(秦:民①:P.24)

젊은 寡婦가 죽은 男便을 생각하는 노래로서 어느 地方에서나 볼 수 있으며, 共通된 感情을 나타내고 있다.

혼 노래

산넘에 다	첩을 두고
범들가바	수심이요
산밑에 다	첩을 둘러니
산태날가	수심이요
물가운데	첩을 둘러니
물질가바	수심이요
장터거래	첩을 둘러니
장관들가	수심이요
첩아첩아	애동첩아
일시라도	잇을 손가
잠시라도	잇을 소나

첩아 첩아

애둥첩아

(義城)

(高:民:P.419f)

사나이광

밤나무가지가

소리나멍

살을매었다

호반울린

위엄도말곡

아전울린

상덕도말곡

사락눈이

뒤덮은날에

남쟁기에

부릿배결어

남을지어

오는임불다

(제주)

(秦:民②:P.166)

한마실에

세첩한놈아

세솔밑에

불사마보라

네만나멍

불아니난다

(제주)

(秦:民①:P.108)

男性의 蓄妾口實은 無子에 있으나, 또한 生活餘裕에서
온 遊興道具로 노는 者도 있으며, 女性의 虛榮心도 原因이
되리라.

貞烈歌

그處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알레라

홍달박씨

오라반임

거짓말섬

말으시오

동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더는

소리라오

온등잔에

불을써서

지름달큰

소릴래라

(咸陽)

(高: 民: P. 428)

삼월이 라	삼진 일에
강남 갔든	제비새로 호젓 마는
이 내 남군	어딜 가난
또 올 줄을	모르 던고

(제주)

(金: 民: P. 1604)

不貞歌

젓 일 년 아	발 길 년 아
대 동 동 편 에	목 발 년 아
병 든 가 장	잠 드려 놓 고
에 린 자 식	밥 주 어 놓 고
네 어 디 가 문	잘 살 거 나

(咸陽)

(高: 民: P. 433)

침 침 과 수	저 홀로 삶 은
지 동 안 고	을 고 서 있 나
죽 을 먹 은	훈 목 에 드 난
좁 소 리 가	두 울 로 난 다

(제주)

(秦: 民: ②: P. 441)

生活謠

못 허 겠 다	못 허 겠 다
요 념 의 노 릇 을	못 허 겠 다
죽 자 니	청 춘 이 오
사 자 니	고 생 이 라
요 념 의 노 릇 을	못 허 겠 다
헤	

(谷城)

(高: 民: P. 214)

대 죽 남 에	외 지 등 에
---------	---------

거적문에	돌치귀에	
별보는	막사리에	
앙작쟁이	점근래에	
드름드는	죽박에	
중돈은	솥에	
들새으신	서방님에	
들창근	씨아방에	
죽자흔죽	청춘이고	
살자흔죽	고생이여	(제주)

(秦:民①:P.216)

生活謠는 우리 國民의 窮乏한 生活의 如實한 反映을 나타내고 있으며, 生活苦의 呼訴를 民謠속에서도 엿 볼 수 있다.

近代謠

전답의 좋은 것은	철도길로 가고	
기집에 고운 것은	갈보로 간다	(金泉)

(高:民:P.189)

한라산 중허리에	시령계 놀고	
신장로 북판에	주동차 놀고	
주동차 북판에	잡놈이 놀고	
잡놈의 북판에	쌍갈보 노네	
갈보라 호는 전	본디 갈보 아니여	
흔 두놈 스정 보난	갈보라 호네	(제주)

(秦:民①:P.253)

近代노래는 이미 過去의 民謠의 一般概念의 埒外로 騰거져 나온 것이라 하겠다.

醉樂歌

노자 노자	젊어 노자
-------	-------

이때 혼절 못놀기면
삼십이 근근하면
놀음도 실긔없네 (軍威)

(高:民:P.180)

산천초목에 속님이 나는데
구경가기 반갑고나
예에 날오라 혼다
산끝 처즈가 날오라 혼다 (제주)

醉樂歌는 「人生一場春夢」이니 最大限度로 오늘을 향
樂 취한 刹那的官能主義가 表現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兩班 노래

부릿대리 상추밭에
상추트는 저처너는
떡노딸이 아니드면
우리안해 삼고지고 (昌原)

(高:民:P.122f)

양반 양반 어떤게 양반
청사도독에 흑색떠떠난
양반 반줄 알암서라
바른길 오로질 흑염서라
그제진정 춤양반이여 (제주)

輓歌

인생 일장 혼몽이오
세상 공명 꿈박이라
너화홍 너화홍
너화넝차 너화홍 (尙州)

(高:民:P.207)

어허로라 어허로라

저승길이 멀다더니
 적삼들렁 초 혼 허난
 대문밖에 저승이여
 허허넝천 어허르다 (제주)

(金:民:P.136)

輓歌는 喪輿를 메고 墓地로 向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어느 地方에서나 大同小異다.

情歌

닭아 닭아 우지 마라
 금싸래기 모시 주마
 뒷집에 짐도령 품안에 들제
 우지 말라고 모시 준다 (居昌)

(高:民:P.260)

은잔 놋잔 사기잔이야
 금전만 주민 사오건마는
 꽃과 같은 우리내님은
 은을 준들 사올매시라
 금을 준들 사올매시라 (제주)

(秦:民②:P.140)

情歌는 모든 노래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 上流
 情歌는 大体로 切實性이 稀薄한 戲戀, 詩的戀愛가
 많고, 下層노래는 生活과 肉体에 가깝다.

聲戲謔

아이고 배야
 무슨배 자라배
 무슨자라 갑자라
 무슨갑 연지갑
 무슨연지 호랑연지 (釜山)

(高:民:P.242)

오라 슬락고지 가게

탈아.

무사? 배아판

무신배? 콩죽 먹은 자라배

무신자라? 툷자라

무신틸? 산툷

무신산? 뫼산

무신패? 쥴매

무신클? 대클

무신태? 왕태

무신헌? 주지왕

무신후지? 남후지

무신평? 백남

무신평? 출백

무신헌? 장출

무신헌? 먹장

무신헌? 고시렁먹 (계주)

韻音들

(秦:民①:P.205)

韻音을 同一音으로 발음하면서 一定한 우습광스런 스토리를 가진 것으로서 民謡라기 보다 童謡라고 하겠으며, 文学的 修辭와는 距離가 멀다.

諧謔謡

우습세라

우습세라

젊은각시

아날때는

지남편의

상투지고

을콩불콩

남는다고

(城津)

(高:民:P.246)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좋고 좋고
 사름은 늙으면 보기가 싫고 싫고
 오동남을 매는 잠실감실하고요
 비바리죽가슴은 몽실몽실흔다 (제주)

(秦:民②: A.98)

우리 민謡의 明朗面이다. 諧謔諷刺는 相當히 豊富하고
 그 質에 있어서도 그다지 低級하지 않다.

怨情 노래

장 개 가 네	장 개 가 네
이 원 식 이	장 개 가 네
앞 집 애 가	구 합 보 고
뒷 집 애 가	책 력 바 도
구 합 책 력	못 갈 레 라

「내 사 싫 네	내 사 싫 네
구 합 책 력	내 사 싫 네」

이 원 식 이	장 개 가 네
남 문 밖 에	장 개 가 네
「삼 천 리 라 도	나 도 가 세
이 원 식 이	장 개 간 데
나 도 나 도	따 라 갈 캐」

장 개 간 다	장 개 간 다
이 원 식 이	장 개 간 다
하 도 낙 수	중 은 날 에
별 린 뒤 끼	차 려 놓 고
열 두 군 사	거 나 리 고

피리징 내
행차거 동
앞뒤에다
좌우청장

소리나네
볼적시면
초롱달고
내리세고

「한모링이
진머리가
두모링이
속머리가
행례청에
오른는섬이

돌거들랑
뚝뚝아파
돌거들랑
뚝뚝아파
돌거들랑
끝아지소

아제전녁
오늘아침
삼단같이
구름같이
신랑신체
교향산천

처널러니
과수로다
좋은머리
풀어놓고
집에살고
돌아오네

큰오마씨
해주해주
두손바닥
「이완식아
날마다고
행차소리
상부소리

거동바라
컬리리고
마주치며
이완식아
가디마는
오대두고
웬말이꼬」 (金泉)

(高:民: P. P. 279 ~ 281)

잡놈이나 맞나시면 죽을유주결
 숫놈이나 맞나시면 남해다주결
 예수나 믿어시면 천당에가결
 선도나 믿어시면 새시상보결
 되지못한 반병두리 맞났다가
 요내속만 불타는구나 (제주)

(秦:民②:P.141)

죽영물은 가시발디
 가시유름 을얏거든
 먹도말곡 씨도말앙
 상에올려 놓앙그네
 울도말곡 절도말앙
 석돌열흘 놓아풀서 (제주)

(秦:民②:P.142)

할락산이 쌓인눈은
 삼스월나민 쳐지건만
 요내가심에 쌓안수심
 어는제민 다쳐질고 (제주)

(秦:民②:P.143)

호호동동 새시방아
 뒤킵이도 새각시아
 놈이여엔 셋별이여만
 나이여엔 한숨이러라 (제주)

(秦:民②:P.144)

怨情 노래는 陸地에서나 濟州島에서나 마한가지로
 男女間의 癡心에 對한 憤怒를 노래로 表現한 것이다.

相思 노래

산천이라 묘한 길에

길주명천	카다가니
이름 없는	꽃이 피네
「꽃아꽃아	푸른꽃아
지지 말고	기달려라
요번행비	돌아가서
훗번행비	다시올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나는 무슨	발꽃인가	
남질적에	아니 지고」	(義城)
	(高:民:P.286f)	

동지선 돌	진진밤에	
앉아 시민	님이 올까	
누어 시민	즘이 올까	
님도 줌도	아니 오고	
천하태풍이	날속이더라	(제주)
	(秦:民②:P.131)	

님의 생각 切々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는
情景이 잘 나타나 있는 노래다.

春遊歌

이러히	뽕을 적에
사방으로	돌아보나
꽃은 피어	만발하고
잎은 피어	회자진대
녹음에	우는 두견
춘경을	자랑하고
화중에	범나비는

향기를

노래한 듯

(倭館)

(高:民:P.439)

산천호목에

속님이 나는데

구경가기

반잡고나

예에

날오라 한다

산꼴쳐즈가

날오라 한다

(제주)

(秦:民③:P.215)

感傷謠

오네오네

비가오네

우룩주룩

비가오네

아침비는

햇임눈물

저녁비는

달임눈물

오네오네

비가오네

우룩주룩

비가오네

밤에밤에

오는비는

청롱황롱

눈물인가

(丹陽)

(高:民:P.456)

날낑은

나어멍시민

놈의어멍

으서도산다

인도하고

인도밋거리

어멍닭은

흔나이웃다

(제주)

(秦:民②:P.151)

큰애기풀이

동구마천

큰애기는

꼭잠각이로

나가고

함경원산

큰애기는

명태객이로

나가고

김제만경

큰애기는

父母에 대한 사랑의 情을 노래한 것이다
傳説謠

안동부사	운오감이
동문으로	드든행차
사개동문	전너서니
병이드네	병이드네
운오감이	병이드네
봉사들여	독경한들
독경독을	볼손가
의원들여	약을쓴들
약효험을	볼손가
무녀들여	굿을한들
굿덕이나	볼손가

(義城)

(高:民:P.220f)

월식사제	일식사제
시늯었다	때늯었다
어서가자	바배가자
쇠물차로	등을치고
플딱졸은	쇠사슬로
실날졸은	목을엮어
어서가자	바배가자

(제주)

(秦:民②:P.173)

傳説謠는 傳説, 民譚乃至 古代小說에 由來한 民謠를
말한 것이다.

打令

허허네이름이	소로구나
위 았고	점손하고
부지런도	할서이고

남을 위해	몸바치고	
부지런도	할사아고	
남을 위해	몸바치고	
사람에게	점잠으기	
네 몸밖이	또있을가	(漆谷)

(高:民:P. 155f)

녹수청강	흐르는물에	
배치식은	저쳐녀야	
가지가지	다져저두고	
썩에썩뉘을	나를주소	
여보당신	언제날봤다고	
썩에썩뉘을	달라흐오	(제주)

(秦:民②:P. 98)

打令을 살펴 보면 陸地나 濟州를 莫論하고, 너무 廣範圍하여 노래의 內容은 人生全般에 亙한 喜怒哀樂 등을 隨時로 機智와 才氣를 發揮한 即興詩的인 것이 많다.

以上으로 Table IV에 分類되어 있는 노래에서 陸地와 濟州島의 民謠中에서 近似한 것은 簡單히 比較하였다 內容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한 點이 많고 日常生活에서 共通된 點은 亦是 民謠에서도 共通된 內容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形式面에 있어서의 近似點은 前章에서 詳述하였으며, 또 Table III에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B. 相異점에 對하여

陸地民謡와 濟州民謡의 相異점을 여러 角度로 들 수 있으나, 爲先 濟州民謡에 볼 수 없는 陸地民謡를 들고 다음에 陸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濟州民謡를 들어 그 内容의 相異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形式面에 言及하기로 한다.

勞働謡에 있어서 모심기노래, 끝베기노래, 불무노래, 새날리기노래, 죽노래, 송구노래 등은 濟州에서 볼 수 없는 노래다.

水田이 거의 없는 濟州島인지라, 「모심기노래」가 있을理 없고, 따라서 「새날리기노래」도 必要치 않은 環境이며, 「죽노래」와 「송구노래」도 볼 수 없다.

다만 「끝베기노래」와 「불무노래」는 있을 법한데 없음인지 筆者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毎年 秋收가 끝나면 殆半의 農家에서는 越冬用 牛馬飼料 (끝—乾草)를 漢拏山麓 草原地帶에서 大々적으로 베어 들인다. 特別히 말의 生産地로서 有名な 濟州島에서 「끝베기노래」는 「말밟기노래」와 同格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야 할터인데 遺憾스러운 일이다.

또 農器具의 製作 및 修理에 必要하기 때문에 「대장간」도 部落마다 있는 實情에 비추어 「불무노래」도 있을작한데 아직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끝베기노래

동무야 동무야	끝베러가자	
낫을 갈아	밟어저리	
근애기 무덤으로	풀 뜯으러가자	(谷城)

(高:民:P.143)

가세 가세	끌비러 가세	
어데로 어데로	가라 하나	
뿔산 말 밀 등	끌비러 가세	
네나 칭칭	나네	
가세 가세	끌비러 가세	
어데로 어데로	가라 하나	
저기 소유물	끌비러 가세	
네나 칭칭	나네	(丹陽)

(高:民:R143f)

道德歌, 警世歌, 政治諺等도 濟州民諺에는 보기 드물고 民間信仰歌는 民諺에 나타난 것을 欲으나, 實際된 民諺等은 흔히 볼 수 있다.

語戲諺中 九九歌, 한글틀이는 欲으나, 數字풀이가 欲으나

일	일본놈이
이	이등박문이가
삼	삼천리강산을
사	사시에
오	오다가
육	육철표를 맞아
칠	칠분도 못살아
팔	팔제도 험악하여
구	구덩이를 판
십	십시에 문언

(秦:民③:R119)

屢說諺가 陸地에는 欲으나, 濟州島에는 欲다. 欲음이 조금도 異常치 않다. 濟州島民들은 大體가 屢說諺를 모른다. 따라서 屢하는 노래가 欲다.

辱說謠

이리치고	저리치고
뱅뱅	대러치고
엳다봐라	젓다봐라
해바라기	뚝떨어졌다
네이자식	벼락을
꿈목너에다	차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올려	재가 될 자식

범거지를	발등에 쓰고
깍글로	나자빠져
꿈사죽음을	할 자식

네어데	살어보자	
이	건방머리치고	
신방머리진	자식 같으니	(술卍)

이년아	저년아	
호으로	호년아	
인두로	지질년아	
똥죽에	빠질년아	
대꼭지록	전질년아	
함박으로	전질년아	(公卍)

(口.民.207)

遊戲謠中에 율노래, 줄다리지노래, 연노래, 널뛰기노래, 고네노래 등이 있는데, 濟卍島에는 율노래가 없는 대신 장기노래가 있으며, 其他는 볼 수 없는 노래들이다.

勤儉素朴한 島民들은 陸地의 農民보다 農閑期를 짧게 가진다. 밖에서 活動할 수 없는 嚴冬만이 그들의 農閑期인 것이다. 五月 端午節이나 八月 秋夕 같은 名節에도 敬虔히 先祖의 祭祀를 모시고 하루 쉬면 그 다음부터는 勤勞가 또 始作된다. 陸地에서처럼 몇일씩 놀며 즐기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놀다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은, 그리 흔히 볼 수 없고, 다만 어른들의 윗놀이와 아이들의 연 날리기는 겨울 農閑期에 만 流行되기는 하나 그런 노래는 듣지 못하였다.

윗노래와 장기노래를 比較하여 보면

윗노래

홑발산이	산 밑에 가고	
석동문이	막 돌아 간다	
윗이야	삿치야	
오금의	떡이야	
동자가사리	박실박실한다	(서울)

(口.民(九))

중이나 메나
뚝。

중은 중가	메는 메가	
는단삼에	꽃이로다	
도야지 도야지	도야지	
오래박죽	도야지	(江西)

(口.民.1696)

장기노래

장기를	두라하니
판이없어	뚫들러라
악양노	지을때에

삼삼머쥘
옥대패로
니모방장
고민하니

곤여다가
실실밀어
먹술치니
판이로다

장기를
장기없이
산에 올라
산유조를
설은돌에
죽새쟁이
즈이즈이
고만하니

두라하니
못들려라
몸미좋은
곤여다가
골라놓고
잡혀다가
큰새기니
장기로다

철첩프로
초강에
저데가는
장기소일

쥬치주어
질렸더니
선배님네
후대장소

장기를
훈련대장
훈일제로
어영대장
실용제로
즈름타편
날알제로
중남간
드러넘어

버려놓니
끝은차는
넘어들고
상장구는
뛰여들고
적도매는
넘어들고
놀란포는
뛰어들고

양수로	집서 삼고
오졸로	선봉 삼아
한나라와	촌나라이
적벽강의	본을받는
지삼이라	

(秦:民①: P.P.195~198)

童男童女 問答體謠 中에
 蓮밥 따는 노래, 덩기와 金通리 노래, 찢어진 錦帛子 노래,
 네집 내집 노래, 주머니 노래 등이 있는데 濟州島에는
 모두 없는 노래다. 濟州島 童謠中에 問答謠가 若干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 가 완디?
 뒷집 할망집이 불담으레 갔다왔수다.
 가난 뭇 주머니?
 곧밥 줍디다
 손은 무신 솟이라니?
 남솟 입디다
 사발은 무신 사발이라니?
 점엿 독사 발 입디다
 솟가락은 무신 솟가락이라니?
 남솟가락 입디다
 장은 무신 장이라니?
 자글장 입디다

(秦:民①: P.203)

作業謠中에서의 木花 따기 노래, 삼삼기 노래현 또한
 물레노래, 바느질 노래도 없으나, 다만 作業中에 生活
 謠, 其他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본다. 「부엌일 노래」
 와 「빨래노래」도 볼 수 없다.

꽃노래 中の 生辰祝歌, 麗人讚歌, 讚花歌等도 濟州島엔 없는 노래다.

儉素한 生活을 當爲하는 濟州島民들은 家族의 生日에도 陸地에서와 같은 豪華로운 感餐을 차리거나, 또는 感裝을 꾸미지도 않는 것이 普通이다.

童女謠中の 採菜謠와 治粧 노래에 對해서는 나들 캐기 노래가 없는 代身 俗謠를 부르는 것이 普通이며, 勤勞에 餘念이 없는 婦女들에게 治粧 같은 것은 念頭에 두지도 않는다. 奢侈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濟州女子들의 特色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陸地에서 보기 드물거나 또는 없는 노래들을 紹介하여 陸地民謠와의 相異點을 研究하는데 보태고자 한다.

濟州島 民謠의 代表的인 것으로서 맨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오돌 또기」이다

오돌 또기

제주야	한라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성산포	일출봉
해돋는	구경도
좋고	좋고
등구데 당실	등구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가나

(金:民:P.3)

海女노래와 발 밟기노래는 濟州島 特有의 民謠라고 하겠다. 이에 對해서는 앞서 第三章에 詳述하였으며,

여기에 再言할 必要가 없기 때문 노래만 적어 보면

海女 노래

쭈무남은	설남은에
요미상착	놈줄소냐
중착이사	놈을준들
상착이사	놈줄소냐

(泰:民①:P.133)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넓은바당	앞을재여
흔질두질	나아가곡
깊은바당	깊일재여
흔질두질	틀어가민
저심질이	왔다갔다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泰:民②:P.68)

발 밟기 노래

어려려려 어려려려
 어~려 하~랑
 효놈의 물들아
 돌랑돌랑 삼스방으로
 돌아오라
 어~려 하~랑
 정신출렁 어서잠간
 불러도라
 아무리호여도
 네가호고 말일이여
 네구실이 뉘구실이나
 병애씨민 발을갈곡

명애 벗이 먼	발 볼 린 다
임댁 이 로	더운 땀 은
중 반 에	염 주 짓 듯
다 른 다 른	떨 어 진 다
어 ~ 러	하 ~ 랑

(秦:民① P. 168~170)

漢夫 노래

용 동 밖 시 에	백 발 술 에 다 가
술 을 주 어 서	물 어 가 라
강 남 서 온	강 갈 치 야
갈 치 가	어 디 를 갔 느 냐
저 녁 밤 을	꿈 께 다
강 남 서 돌 아 온	강 갈 치 야
나 술 은	섞 은 삼 술 이 라
일 로 직 각	절 로 직 각
어 서 물 어 가 거 라	

(金:民:P. 36)

濟州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 있는 섬인 만치 漢業을
主業 或은 副業으로 하는 漢夫들이 많으며 陸地보다는
더 現實的인 듯이 많다.

이 밖에도 火田畝壁에 「따빔노래」, 墳土 다지는
데 「평토노래」, 靈柩運喪에 「상여노래」 婦女들의
室内手工品으로 양태결이에 「양태노래」 等도 特異
한 것들이다.

따빔노래

허궁아	남따비아
박이나	잘들라
두잡래	따비아

벗이나 잘들라

(金: 民: P. 40)

평토노래

공동 묘지가 어딜러나
대문 앞이가 공동 묘지여
어 어어 달구
청룡 끝엔 아들 조손
대과 급제 나는 구나
어 어어 달구

(秦: 民①: P. 192)

상여노래

정든 부모 놓아 두고
정든 자식 놓아 두고
일개 친척 놓아 두고
삼천 동갑 일만 벗들
놓아 두고
이별 일래 작별 일래
허허 낭천 어허 로다

(金: 民: P. 137)

양태노래

요놈의 양태 절러지라
절러지라
한코 두고 요놈의 양태
절러지라 절러지라

(金: 民: P. 97)

다음에 童謡 四, 五篇만 들고 内容面의 相異點을
마치고자 함也.

童謡

1. 가자 가자 잔범이야
 오자 오자 온범이야
 칼로 채어 반범이야
 돈을 훔았 봉갸더니
 떡을 훔나 사 먹었네

(秦:民②:P.186)

2. 꼼작 꼼작 고사리 꼼작
 제죽한라산 고사리 꼼작
 꼼작 꼼작 고사리 꼼작
 제죽한라산 고사리 꼼작

(秦:民②:P.186)

3. 핀당 핀당 불한당
 아들 아들 도깨 아들
 메누리 메누리 주메누리
 열래기 행빛 돌돌이
 대천바당 매떡귀

(秦:民②:P.187)

4. 마농먹영 빙 빙
 고치먹영 빙 빙
 마농먹영 빙 빙
 고치먹영 빙 빙

(秦:民②:P.189)

5. 말이 되어야 보말이 되지
 보말이 되어야 거드레기가 되지
 거드레기가 되어야 상통이가 되지
 잡아도 상통이 좇어도 상통이
 압만해도 상통인 상통이

(秦:民②: P. 189)

形式面의 相異點은 陸地에서는 四四調가 全民謠의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데 比해서, 濟卅島 民謠는 四五調가 絶對的인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

9. V Table III.

그리고 陸地에서 보기 드문 六五調, 四三調, 六六調等을 볼 수 있는 點이 濟卅 民謠의 形式上の 差異點이라고 하겠다 9. V Ch. IV. B. 形式上の 特質.

以上으로 陸地 民謠와 濟卅 民謠의 大綱을 比較하여 그 近似點과 相異點을 記述하였거니와 이러한 同異의 要因을 다음에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C. 同異의 要因

첫째, 近似의 要因

勞動謠에 있어서 主로 農業에 從事하는 階級에 陸地나 濟卅나 마찬가지로 農耕, 播種, 除草, 收穫等 勞動에 隨伴되는 노래 卽 타작노래, 방아질가노래, 맷돌노래, 밭매가노래等은 매우 近似하며, 나무꾼노래, 뱃노래, 베들노래等 生活과 作業에 있어서 共通된 點은 民謠에서도 近似함을 나타내고 있다.

婦謠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過去 오랜 동안의 封建制度의 影響을 받아 女性에게 賦課된 一般的인 苛酷한 鐵鎖는 陸地나 濟卅의 區別없이 所謂 三從七出의 道德律이라 할 것이다.

어려선 아버지에게, 出嫁해선 男便에게, 어머니 되어선 아들에게 服從하라고 하였으며, 七出에 이르러서는

不順, 亂淫은 그럴법도 하려니와 無子, 嫉妬, 惡疾, 多言을 竊盜와 並列하여 夫家에서 쫓겨나는 七大條件으로 삼는다니, 岌然絶倒할 지경이라 할 것이다.

또한 庶民層의 女性은 男性뿐만 아니라 兩班과 貧困은 더욱 큰 敵이라고 할 수 있으니, 女性들의 노래에는 鬱憤과 不平과 怨嗟의 노래가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시집살이노래, 八字노래, 不滿歌, 靑娥歌, 妾노래, 怨情歌, 貞烈歌等 生活環境과 모든 條件이 비슷한 女性들의 苦情은 近似하게 民謠에 나타나고 있다.

婦謠에 屬하는 것으로서 母女愛戀歌 卽 자장가, 誨女歌 戀母歌等은 時代와 地域의 差異없이 同一한 人情이라.

童男童女問答謠 或은 童謠에 있어서도 內容의 差異는 多少있다 할지라도 童心을 부른 노래로서는 大同小異하다.

遊戲謠에 있어서는 鄉土의 環境에 따라 成長 消失된 것이 있으나, 율놀이, 연날리기等은 同一한 風俗이 되며 民謠中에도 볼 수 있다.

聲戲謠, 言語謠等도 다 같이 分布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民族의 明朗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우 유우모어를 얘기하는 才致를 가지고 있다.

들재, 相異의 要因

濟州島에는 地理的條件으로 因하여 水田이 거의 없고 全農耕地의 98%以上이 보리, 조, 산두(陸稻)其他 雜穀을 耕作하는 밭뿐이기에 移秧歌(모심기노래) 새날리기 노래들을 들을 수 없다. 그 代身 稻穀과 비슷한 陸稻나 粟穀의 播種을 한 뒤에는 밭을 밟는다. 이것은 濟州島의 土質이 가벼운 위에 더구나 「亂多」의 影響을 막기 爲

146

한 것이다. 달 때를 보면서 踏田歌를 소리 높이 부르는
風俗은 오직 夏節의 濟州島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民謠에도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또 濟州島 民謠에서 볼 수 있는 「海女노래」도
民謠의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四面이
바다로 둘러 있는 地理的 條件도 있지만 日本과의 交通
이 頻繁하였던 關係로 女性들의 所謂 「내외법」이
일찍 없어지고 勤勞性과 女性開放性이 일찍이 海女
를 낳은 要因이 될 것이며, 耕作地가 적은 까닭에 自然
男子는 漁業을, 女子는 潛水를 副業으로 삼게 된
것이다.

耕作地의 擴張을 爲한 火田(不毛地)의 開墾을 할
때, 불리워지는 「따빛노래」도 濟州 特有의 노래이다.

生活이 儉素하고 勤勞에 餘念이 없는 島民들은 아
예 豪奢할 생각도 없거니와, 周圍環境이 素朴-一畵
인데 혼자 華麗丹粧함도 어울리지 않은 일이다.

日常生活에 있어서 簡素 儉薄을 爲主로 하기 때문
盛饗, 華筵, 食道樂들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生辰
祝歌, 麗人讚歌, 讚花歌 治粧 노래들은 갖지 않다.

農村에서 喪輿를 메고 輓歌를 부르는 光景은 尙
하며 靈柩의 埋葬後 墳墓를 굳게 다지는데 「달구노래」
를 지금도 旺盛히 부르는데 이는 옛 風習이 남은 것으로
본다.

如何든 郷土로서의 條件에 適應한 것은 長久히 간직되고
不必要한 것은 自然, 消滅되어 가고 있는데 이 뜻은 이
느 地方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地理的, 歷史的 條件 및 交通關係, 그 郷土民의 生活
狀態, 民俗等이 民謠의 消長에 미치는 要因이 된다.

形式面에서 特異한 點으로는 陸地의 四四調에 比하여 濟州의 四五調를 들 수 있으나, 이 原因을 살펴보면 勞動의 리듬에 맞춰 불려워지는 후렴에

이여 이여 이여 동 하라 (秦:民③ P.286)

어야 흥아 흥애로구나 (全上 P.284)

어야 뒤야 산이로구나 (全上 P.280)

이여 이여 이여도방애 (全上② P.210)

어야 흥아 어야도흥아 (全上 P.200)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全上① P.82)

이여 사나 이여도사나 (全上② P.68)

를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民謡의 歌詞도 후렴에 맞추어 四五調로 形成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四五調를 지키려는 努力으로 四音인 말을 五音으로 늘인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전오마 일러 랑 두영 (秦:民① P.1)

지러기가 흘 입을 하고 (全上 P.11)

물도 산도 넘지 나 말앙 (全上 P.20)

홀로 앓아 우너는 새야 (全上 P.24)

아진들사 내몬살 리야 (全上 P.62)

콧소리가 두울로 난다 (全上 P.69)

어멍으신 질르로 가라 (全上 P.70)

명어 짚란 못갠으 더라 (全上 P.98)

화단뒤에 배래여 보라 (全上 P.100)

요런방애 도외여 도라 (全上 P.123)

뒷멍애야 무너 나 나라 (全上 P.116)

속광섬사 어디사 가리 (全上② P.150)

해질 고갯 배래여 보라 (全上 P.185)

봄애꽃이 번성을 흔들 (全上③ P.42)

유우리분	우리내 부모	(泰:民③ P.42)
어느누제	알아촉 리야	(全上 P.74)
빈방으로	돌아나오라	(全上 P.139)
시냇물이	흘러온 간들	(全上 P.154)

四四調가 陸地民謡의 基本形이며, 呼吸에 맞
는 形式이라면 濟州民謡의 基本形의 胎盤이며,
呼吸에 맞는 것은 四五調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D. 要約

A. 近似處에 對하여

韓國民謡分類一覽表에 依하여 陸地民謡와 濟
州民謡를 比較하고 近似處를 摘出하여 그 內容을
一、二篇式 對照 比較하고 또한 形式面의 類似處도
比較한 바

勞動謡、打令、兩班노래、醉樂歌、近代謡
生活謡、輓歌、傳説謡、語戲謡、情歌、
童男童女問答體謡、시집살이노래、作業謡、
母女愛戀歌、女嘆歌、烈女歌、꽃노래、童女謡
等에 있어서 近似處를 發見하였다.

B. 相異處에 對하여

이도 亦是 韓國民謡分類一覽表에 依하여 陸地
民謡에 있으면서 濟州民謡에 없는 것을 摘出하고,
또한 濟州民謡集에 依하여 陸地에 볼 수 없는
濟州島固有의 民謡를 골라 내어 적어 보면

첫째, 濟州島에는 볼 수 없고 陸地에만 있는 노래,
 모심기노래, 끝베기노래, 불무노래, 새날리기노래,
 죽노래, 송구노래, 짐승노래, 달노래, 道德歌,
 民間信仰歌, 警世歌, 政治謠, 九九歌,
 한글풀이, 辱說謠, 遊戲謠, 童男童女問答體
 謠中一部, 作業謠中一部, 꽃노래中一部,
 童女謠中一部를 들었으며 重要的 것은 노래
 를 直接引用하여 紹介하였다

둘째, 濟州島에만 있는 노래.

발밟기노래, 海女노래, 다비노래, 달구노래,
 장기노래, 대화오 오돌또기, 양태노래,
 童謠中一部 등을 紹介하였다

끝으로 形式面에 있어서는 陸地民謠의 過半이
 四四謠인데 반하여 濟州民謠의 大部分이 四五
 謠로 되어 있음이 두드러진 相異點이라 하겠다.

C. 同異의 要因

勞動謠에 있어서 農業을 主業으로 하고 있는만지
 陸地나 濟州에 있어서, 農耕, 播種, 除草, 收穫等
 에 隨伴되는 打作노래, 방아장기노래, 맷돌노래,
 발매기노래 등은 近似하며, 또 生活上 必要한 作業
 謠, 나무꾼노래, 베들노래, 밧노래等 共通한 點이 있
 으며, 特別히 婦謠에 있어서 三從七去之 道德律에
 사로잡힌 鬱憤, 不平, 怨嗟等의 노래가 深刻의 程度
 에 差異는 있지만 類似함을 볼 수 있다 卽
 八字노래, 靑娥歌, 不滿歌, 妾노래, 怨情歌,
 貞烈歌等 女性의 生活中에 빛어지는 環境을
 노래한 것도 同一한 條件下에서 생긴 것이다.

이 밖에 童謠等에서 童心の 呼吸이 비슷하다는

뜻을 알 수 있다.

相異점에 있어서의 要因은 地理的인 環境의 影響이 第一 크다고 하겠다.

濟州島는 全耕作地의 98% 程度가 밭이기 때문에 稻作이 거의 없어서, 모심기노래, 새날리기노래 등이 必要치 않으며, 그 대신 섬이라는 條件이 있어서, 男女間에 바다에 나가서 作業하는 漁夫歌, 海女 노래等 獨特한 것이 있다.

土質이 가볍기에 播種하고 밭을 밟게 되니 踏田歌가 생겨났으며, 女性들의 野外勞動과 男子들의 日本, 陸地等の 海外稼業은 女子들로 하여금 獨立된 生活力을 強하게 했다. 婦謡가 全島民謡의 七,八割을 차지하고 있으며 勤勉, 素朴한 生活를 營爲하는 點等이 노래에 잘 表現되고 있다.

即 地理的, 歴史的 影響을 받는 郷土民의 生活樣式과 風俗에 依하여 그 郷土民謡의 特長이 생기고 또한 不必要한 點은 漸次 消滅되므로 陸地와의 同異의 要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参 考 文 献

1. 秦聖麒., 濟州島民謠, (第一輯) 제주희망프린트사 1958
2. ———., ——— (第二輯) 제주중앙미술사 1958
3. ———., ——— (第三輯) 제주신문프린트사 1958
4. 周玉山., 朝鮮民謠概論, 東洋프린트社, 1947
5.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實蹟硏究社, 1932
6. 金素雲., 朝鮮民謠集, 東京泰文館 1923
7. ———., 諺文朝鮮口傳民謠集, 東京書肆 1933
8. 金永三., 濟州民謠集, 서울, 中央文化社, 1958
9. 高晶玉., 朝鮮民謠硏究, 首善社 1948

結 論

以上 濟州島 民謡를 考察한 바, 陸地와는 달리 鄉土的인 特色을 지닌 民謡가 豊富하다, 果然, 「民謡의 섬」이라고 불리울만 하다. 濟州島는 地理的, 歷史的 影響을 받아, 오랫동안 閉鎖性社會를 이루고 있던 關係로, 陸地의 民謡가 漸次 消滅되어가는 오늘날에도 濟州島의 民謡만은 옛 모습 그대로 維持되고 있으며, 오히려 盛況을 이루고 있는 事實을 볼 때, 濟州民謡야말로 그대로 民謡의 生命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疎忽히 보면 안 될 것이다.

우리들 精神糧食의 源泉이 아직 매마르지 않은 샘터이니 바로 濟州島라고 보아야 되고 또한 濟州民謡의 價値를 여러 角度로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本論에서 말한 바 濟州民謡의 內容과 形式에 대하여 要約하여 말하자면

첫째, 內容面에 있어서 婦謡가 陸地의 그것보다 훨씬 많고, 또 그 大部分이 勞動謡가 占하고 있음은 濟州島 婦女들의 勤勞性을 나타내고 있음은 特色의 하나이며, 民謡가 勞動의 리듬에 의하여 發生되었다는 좋은 證據를 보여 주고 있다.

婦謡에 比해서 男謡는 거의 存在權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좋을 만치 貧弱하다. 男性들은 이미 民謡에서 떨어져 나가 俗謡, 俗歌, 雜歌의 世界로 옮겨간지 오래다. 婦謡는 量的으로 優勢함은 勿論 그 생각과 言語에 있어서 如實히 그들의 生活와 感情이 반영되어 있다. 特別히 海女노래, 麥래무는노래, 방에 잠는 노래, 양태노래 등에 婦女의 生活相이 잘

나라나 있다.

特異한 處는 시집살이 노래, 寡婦 노래, 妾 노래 등에 있어서 陸地의 그것에 比하여 深刻한 맛이 적다. 그 理由로는 濟州島에서는 大概 子女를 結婚시키면 別居 獨立케 하여 子女들로 하여금 自治의 길을 마련하도록 하고, 陸地에서와 같은 大家族制度가 일찍부터 없어졌으며, 그 위에 島民은 어려서부터 배에 스며든 勤勞性은 老幼이 되어도 臥病하지 않은 限, 일을 하는 習慣이 있으며, 無爲 安逸를 貪하거나, 子女들의 扶養을 받으려는 觀念이 적다. 따라서 시집살이에서 「며누리의 설음」이라든가 「시어머니의 학대」 같은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으며, 또한 寡婦의 몸이 되더라도 生活을 營爲하는 自信을 가지고 그리 窮乏을 느끼지 않는다.

萬一 妾生活를 하게 되는 境遇에도 全的으로 男便에만 依支하여 好衣好食을 하려는 傾向은 적다.

이 밖에 濟州島는 地理的 關係로 民謡에 鄉土的 多樣性을 지니고 있으며, 바다를 背景으로 한 노래가 적지 많이 깔려 있다.

勤勞性과 素朴性은 濟州島民性의 特徵인 만큼 노래 속에 잘 表現되고 있다. 또한 노래의 內容을 살펴 보면 比喻가 많고 象徵語를 많이 驅使하고 있는 處等을 들 수 있다.

둘째, 形式面에 있어서는 그 律調가 陸地民謡의 大多數가 四四調임에 比하여 濟州民謡는 四五調가 首位를 占하고 있다. 濟州民謡의 過半이 四五調가 차지하고 있음은 四四調가 陸地民謡의 基本形이고 呼吸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四五調는 濟州島民의 呼吸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四五調가 많은 原因을 살펴보면 후렴이 붙어 있는 濟州民謠中에서 그 후렴에 四五調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歌詞도 四五調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리고 四五調의 律調를 지키려는 努力으로 四音인 말을 五音으로 늘인 예를 볼 수 있다. 이것은 詩로서 볼 때에는 拙劣한 手法임에 틀림 없으나, 이도 또한 民謠特有의 修辭法의 하나이다.

셋째, 濟州島民謠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그 研究分野가 너무나 廣範圍하기 때문에 큰 問題 두 가지를 손대지 못하였다. 그 하나는 濟州島民謠의 民俗學的 研究이고, 또 하나는 言語學的 研究이다.

1. 「傳說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濟州島인 만치 高夫良三乙那의 傳說을 비롯하여 雪漫頭姑, 金寧堂(蛇窟), 廣靜堂, 徐市, 燃燈神等 傳說이 많고, 따라서 巫俗이나 民俗에 있어서 特異한 處이 許多하여 앞으로 民俗學的인 面에서 깊은 研究가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2. 濟州島民謠는 方言 그대로의 表現이기 때문에 濟州島民外에는 이 民謠를 註釋하는 解得하기 困難하다. 徹底한 註釋을 爲하여 古語學, 方言學, 漢文學等 語學的인 關係를 맺어야 할 것이다. 濟州島民謠 1, 2, 3輯과 濟州民謠集을 살살이 살펴본 바 意味未詳의 句節도 있거니와 編者의 註釋中에 誤釋乃至 牽強附會한 處이 多少 있음

을 發見하였다. 濟州民謡를 中心으로 語學的인
 研究을 하는 것은 濟州民謡의 開拓 發展과 方
 言 研究에도 大端히 有効하고 重要한 일이다.

參考文獻

(1) 書籍類

- | | | | |
|------------|----------------------|-----------------|---------|
| 安藤 弘., | <u>藝術の起源.</u> | 東京 岩波文庫. | 1921 |
| 白 鉄., | <u>文學概論.</u> | 서울 新丘文化社. | 1955 |
| 方鍾炫., | <u>濟州島의方言.</u> | 朝鮮文化叢說. | 1947 |
| 張籌根., | <u>韓國의神話.</u> | 서울 成文閣. | 1961 |
| 林憲道., | <u>耽羅民謠小政.</u> | (一石李熙昇先生頌壽記念論叢) | 1957 |
| 秦聖麒., | <u>濟州島民謠.</u> | (第一輯) 제주희망프린트사. | 1958. 3 |
| ————— | ————— | (第二輯) 제주중앙미술사. | 1958. 7 |
| ————— | ————— | (第三輯) 제주성문프린트사. | 1958. 9 |
| 周玉山., | <u>朝鮮民謠概論.</u> | 서울 東洋프린트社. | 1947 |
| 金東旭., | <u>韓國歌謠의研究.</u> | 서울 乙酉文化社. | 1961 |
| 金斗奉., | <u>濟州島實記.</u> | 大阪 濟州實踐研究社. | 1932 |
| 金素雲., | <u>朝鮮民謠集</u> | 東京 泰文館. | 1927 |
| ————— | <u>諺文朝鮮口傳民謠集.</u> | 東京 高松堂 | 1933 |
| 金永玉., | <u>濟州民謠集</u> | 서울 中央文化社 | 1958 |
| 高晶玉., | <u>朝鮮民謠研究.</u> | 서울 首善社 | 1948 |
| 李東岐
白 鉄 | <u>國文學全史.</u> | 서울 新丘文化社 | 1957 |
| 李熙昇., | <u>國語學概說.</u> | 서울 民衆書館. | 1955 |
| 李在郁., | <u>朝鮮民謠序說.</u> | 朝鮮文化叢說. | 1947 |
| 李崇寧., | <u>濟州島方言의形態論的研究.</u> | 東方學志, 三輯. | 1957 |
| 宋錫夏., | <u>韓國民俗考.</u> | 서울 日新社. | 1960 |
| 竹友藻風., | <u>民謠</u> | 東京 岩波書店. | 1934 |

(2) 月刊誌所載論文類

- | | | | |
|-------|-------------------------|------------|----------|
| 張籌根., | <u>濟州島民謠選.</u> | 濟州文化創刊号. | 1957. 6 |
| ————— | <u>濟州島女神考.</u> | 濟州文化創刊号. | 1957. 6 |
| 崔鶴璇., | <u>濟州民謠의 4科에 海女の生態.</u> | 現代文學 4卷12号 | 1958. 12 |

任東權.,	<u>郷土民謡の考察</u> (1), 現代文学3巻第6号,	1957. 6
————.,	————(2), 現代文学3巻第8号,	1957. 8
————.,	————(3), 現代文学3巻第9号,	1957. 9
金完鎭.,	濟州島方言の日本語語辭借用에 對하여.	
	국어국문학第18号,	1957. 12
金榮敦.,	<u>제주도 방언의 어미 활용</u> (1), 한글通卷119号	1956. 10
————.,	————(2), 한글通卷121号	1957. 2
————.,	————(3), 한글通卷122号	1957. 10
————.,	<u>濟州方言의 音韻概觀</u> , 濟州文化創刊号	1957. 6
高橋亨.,	<u>民謡에 나타난 濟州의 女子</u> , 朝鮮	1933. 1

(3) 新聞所載論文

朴北香.,	<u>民謡의 歌</u> , 每日申報,	1927. 6. 26
金思燁.,	<u>朝鮮民謡研究</u> , 東亞日報,	1935. 8. 2
金台俊.,	<u>朝鮮民謡의 概念</u> , 朝鮮日報,	1934. 7. 24
宋錫夏.,	<u>民俗에서 風俗으로</u> , 東亞日報,	1938. 6. 12

Table I 濟州民謠分類表 (I)

	分 類	篇 數	摘 要
1	이 야 흥	4	+ ⊙
2	오 돌 띄 기	5	+ ⊙
3	맷 돌 노래	10	+
4	방 아 노래	9	+
5	해 녀 노래	17	+
6	김 매 는 노래	5	+
7	발 밟 는 노래	2	+ ⊙
8	평 토 노래	2	⊙
9	시집 살 이 노래	10	+
10	팔 자 노래	5	+
11	첩 노래	6	+
12	타 작 노래	5	+ ⊙
13	나무 깨 는 노래	5	⊙
14	따 밋 노래	2	⊙
15	어 부 노래	3	⊙
16	뱃 노래	7	+ ⊙
17	양 태 노래	7	+
18	상 여 노래	3	⊙

+ 婦謠. ⊙ 男謠.

Table II 濟州民謠分類表 (II)

	分 類	1 輯	2 輯	3 輯	計	摘 要
	맏 돌 노래	74	3		77	* +
2	방 아 노래	25	4		29	* +
3	해 녀 노래	32	6	40	108	* +
4	타 령	19	34	17	70	+ ⊙
5	김 매는 노래	2	2		4	* +
6	발 밟는 노래	2			2	* + ⊙
7	베 틀 노래	2			2	* +
8	자 장 가	2			2	+
9	평 토 노래	2			2	* ⊙
10	장 기 노래	2			2	⊙
11	대 화 요	2			2	+ ⊙
12	기 타	39	26	30	115	+ ⊙
13	과 부 노래		18	44	82	+
14	시집 살이 노래		45	48	93	+
15	원 정 노래		30		30	+
16	팔 자 노래		67	53	120	+
17	동 요		13	47	60	+ ⊙
18	첩 노래		8		8	+
19	타 작 노래		3		3	* + ⊙
20	망 건 노래		3		3	* +
21	사 친 노래			32	32	+
	計				846	

* 勞動謠, + 婦謠 ⊙ 男謠

Table III

[illegible]

Table IV

韓國民謡分類一覽表 (高麗王)

一男謡	1. 勞動謡	(ㄱ) 보리타작노래 (ㄴ) 모심기노래 (ㄷ) 나무꾼노래 (ㄹ) 밭노래 (ㅁ) 방아질기노래 (ㅂ) 꿀배기노래 (ㅅ) 밭갈기노래 (ㅇ) 불부노래 (ㅈ) 새날리기노래 (ㅊ) 옥노래 (ㅋ) 송구노래	○ X ○ ○ ○ ○ ○ X X X X	
	2. 打鈴	(ㄱ) 짐승노래 (ㄴ) 타령 (ㄷ) 달노래	X ○ X	
	3. 兩班노래		○	
	4. 道德歌		X	
	5. 西平樂歌		○	
	6. 近代謡		○	
	7. 民間信仰歌		X	
	8. 輓歌		○	
	9. 警世歌		X	
	10. 生活謡		○	
	11. 政治謡		X	
	12. 傳説謡		○	
	13. 語戲謡	(ㄱ) 九九歌 (ㄴ) 한글놀이 (ㄷ) 鮮戲謡 (ㄹ) 諧謔謡 (ㅁ) 辱謔謡	X X ○ ○ X	
	14. 遊戲謡	(ㄱ) 윷노래 (ㄴ) 줄다리기노래 (ㄷ) 연노래 (ㄹ) 널뛰기노래 (ㅁ) 그네노래	X X X X X	
	15. 小情歌		○	
	16. 童男童女 向答体謡	(ㄱ) 蓮葉라는노래 (ㄴ) 땀기라금초리노래 (ㄷ) 짝어진錦夫子노래 (ㄹ) 네집네집노래 (ㅁ) 두머리노래 (ㅂ) 怨情노래 (ㅅ) 相思노래	X X X X X ○ ○	
二婦謡	1. 시집살이노래			
	2. 作菜謡	(ㄱ) 베돌노래 (ㄴ) 맷돌노래 (ㄷ) 밭매기노래 (ㄹ) 木花야기노래 (ㅁ) 삼삼기노래 (ㅂ) 들레노래 (ㅅ) 바느질노래 (ㅇ) 부엌일노래 (ㅈ) 빨래노래 (ㅊ) 海女노래	○ ○ ○ ○ ○ ○ ○ ○ ○ ○	
	3. 母女愛戀歌	(ㄱ) 자장가 (ㄴ) 誠女歌 (ㄷ) 戀母歌	○ ○ ○	
	4. 女葉歌	(ㄱ) 八字노래 (ㄴ) 不滿歌 (ㄷ) 靑娥歌 (ㄹ) 妾노래	○ ○ ○ ○	
	5. 烈女歌	(ㄱ) 貞烈歌 (ㄴ) 不貞歌	○ ○	
	6. 孕노래	(ㄱ) 生辰祝歌 (ㄴ) 春遊歌 (ㄷ) 麗人讚歌 (ㄹ) 讚花歌	X ○ X X	
	7. 童女謡	(ㄱ) 採菜謡 (ㄴ) 感傷謡 (ㄷ) 治米노래 (ㄹ) 근애기놀이 (ㅁ) 肉弄見노래	X ○ X ○ ○	

○ 濟州民謡에 있는것 X 濟州民謡에 없는것 ⊙ 濟州에만 있는民謡